

금주의 기도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월 27일 (토) 제 166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 이제 생명 존중 문화로 돌아섰다!

미 언론, “로vs웨이드” 판결 45주년 “프로-라이프” 성향 선회 사회분위기 보도

미국이 다시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낙태 반대 활동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www.operationrescue.org)가 지난해 말 ‘태아를 보호한 공로’로 ‘2017 올해의 낙태반대 인물 말라치 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것이 단적인 실례다.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태아를 보호하고 낙태하는 이들에게 연방기금을 쓰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는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트로이 뉴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트럼프는 현대사에서 가장 낙태를 반대하는 대통령으로 증명됐으며, 전임 대통령들보다 실천적으로 낙태 반대를 지지해줬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낙태가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라고 불리는 판결 때문이다.
‘로 대 웨이드’란,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산 전 3개월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내린 판결을 일컫는다. 이는 여성들은 임신 후 6개월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낙태 합법화’의 물꼬를 튼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박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낙태할 수 없다는 낙태금지법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바로 인간 생명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도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또한 출산과 낙태 권리를 여성의 선택권 혹은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세계 생명운동의 역사에 큰 전기를 제공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생명수호운동 진영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프로라이프’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해마다 1월 22일을 전후해 워싱턴DC에서 생명대행진(March for Life)을 실시하고 낙태금지를 촉구했다.



낙태 합법화를 물고온 로대웨이드 재판을 제기한 매킨비가 회회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반낙태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나아가 캐나다와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행진을 위한 연대 세력이 결집했고, 한국에서도 이 행진의 영향으로 지난 2012년부터 프로라이프연합회 주관으로 생명대행진이 시작됐다.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못했지만, 수십 년간 행진이 이어지면서 미국 안팎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는 이 행진을 통해 위기임신 여성들을 돌보는 센터를 비롯해 낙태를 막고 아기 양육을 돕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게다가 이러한 지원은 전액 자발적인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

로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사회 전반에서 낙태에 관한 인식 변화가 점차 나타나면서, 2014년도 낙태 건수가 92만6000건으로 1974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또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미국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 50건을 통과시키는 변화가 이어졌다.
한편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낙태 반대에 기여한 업적 8가지를 열거했다.

(3면으로계속)

‘셀프 리더십’ 으로 다져지는 공동체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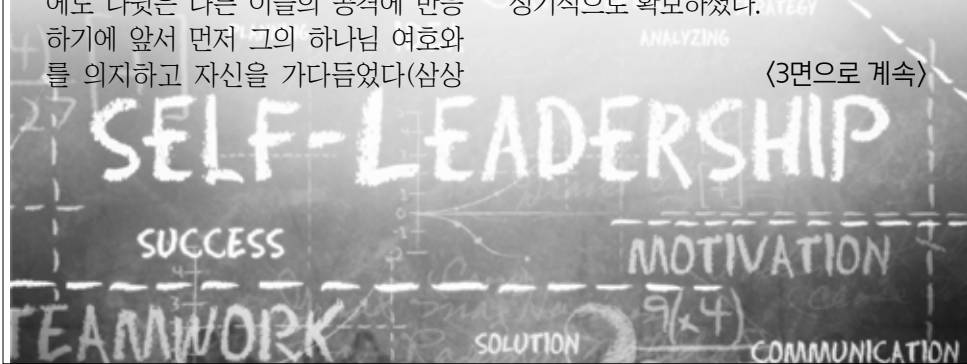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의
교회내 활용 위한 11가지 점검 항목 소개

리더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향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는 동서남북 전방위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한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게만 집중하지 않고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비자카드의 창립자인 디 호크(Dee Hock)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리더십에 쏟는 힘의 절반을 뚝 떼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 다음, 나머지 절반으로 아랫사람, 윗사람, 좌우를 지도하는 데 써야 합니다.” 디 호크의 말처럼, 리더는 리더십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할애해야 한다. 이른바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모든 조직 이론에서 주목 받는 리더십 이론으로 셀프 리더십은 교회공동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지시, 명령, 통제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목표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업무성과를 증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 리더십의 경우는 조직구성원들이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경우 리더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셀프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자아관리 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적인 능력발휘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
따라서 고든 맥도널드(G. MacDonald) 목사는 ‘셀프 리더십’을 교회 리더가 수용하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11가지 점검 사항들을 제시해준다(The Need for Honest Self-Assessment).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한다. 다윗과 전사들이 전장에 나간 사이 자신이 거주하던 시골락 성읍이 잿더미가 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납치를 당하게 됐다. 슬픔에 잠긴 백성들은 다윗에게 리더 자격이 없다 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돌로 치려고 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 바로 남을 이끌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다급한 상황임에도 다윗은 다른 이들의 공격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을 가다듬었다(삼상

30:6). 한마디로, 다윗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다스리는 셀프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 예수님도 셀프 리더십을 몸소 체험하셨다.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시고 나면, 지난 사역을 점검하시며 기도하셨고, 음식과 은둔의 시간을 보내셨다. 소명을 가다듬고 사명을 다잡으며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셨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 론
민경엽 목사



2면

‘2018, 지구촌 최우선
외교정책 7가지를 주목하라!’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인/터/뷰
회장 홍연숙 교수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론

세상은 감동을 원한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이진희 회장이 1993년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어떤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만지를 잔뜩 뒤집어쓴 삼성의 어떤 제품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했다. “가족만 빼고 다 바꿔라!” 그가 수많은 임직원 앞에서 발표한 명령이다. 당시 삼성의 무선제품의 불량률은 11.8%였다. 2천여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휴대전화 15만 대를 불도저로 몽개버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감행했다. 순식간에 1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 때 삼성의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 공동여 만든 제품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는 상징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결국 많은 노력 끝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재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삼성의 수뇌부는 신 경영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수립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다시 배우자!” 즉 해외의 다른 우수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삼성의 취약점을 보강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이 100년 전 신사유람단을 해외에 파견했던 심정으로 국내의 인재들을 조속히 해외에 보내 글로벌 전략가로 육성하자.” 이런 와신상담의 노력 끝에 삼성은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오랫동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며 계속 추락하는 요인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되짚기도 꺼려진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에 침체 국면이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노란불이 깜박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빨간불이 켜질지 모른다. 빨간불이 켜지면 자동차나 사람이나 다 서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 한국인들의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17.6%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열 명 중에 두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민교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56%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이다. 20%는 불교이고, 18%는 천주교인이라고 한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전체 그리스도인 각자가 가슴아파하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사도 베드로 역시 1세기 로마 황제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과 이단의 핏에 빠져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깊이 고민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한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먼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상기시킨다. 이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어려움들은 종식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의 날이 오기만을 염원하며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지 않았던가. 그는 이 날을 사모하는 자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주문하였다. 신성한 성품이란 믿음으로 시작하여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앙 인격을 말한다. 이런 여덟 가지 신앙 인격을 계발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교회는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도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원하시는 주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과제 아닌가? 하지만 갈수록 전도가 먹이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곤혹스러워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을 뒹군다는 어느 날부터 ‘인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도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라면, 인도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전하지만 주로 교회에 초대하여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교회에는 1년 동안 교향교수로 온 어떤 형제 가정이 찾아왔다. 카센터를 하는 우리교회 장로의 인도를 받아 출석하였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안 다니다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교회를 다녀보라는 어머니의 권면도 있고 하여 비록 좀 먼 거리지만 꾸준히 나왔다. 그런 그 부부가 지난 성탄주일에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은혜스런 예배와 다정다감한 교인들, 소그룹의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생각에 매료되어 한 주 한 주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결국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가져보겠다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였다. 그들 부부의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재를 보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외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신성한 성품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말을 듣기보다는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

‘2018, 지구촌 최우선 외교정책 7가지를 주목하라!

CFR, 제임스 M. 린지 선임 부소장/조사국장이 제시하는 세계 7대 위험들 소개

지난 한해 큰 뉴스가 상당히 많았다. 2018년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뉴스 중에는 의심할 바 없이 뜻밖의 사건도 있을 듯하다. 1년 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인종청소가 임박했음을 경고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슬프게도 2017년 최대 뉴스 중 하나로 떠올랐다.

어쩌면 앞으로 1년 뒤 이집트 봉기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재정위기가 전 세계의 화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옛 말에도 있듯이 “미래는 특히 예측하기 어렵다(It's hard to make predictions, especially about the future).”

1. 북한의 핵 야욕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 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격적인 트윗,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엄포로 그 약속을 뒷받



1위가 북핵...중국의 야심, 미국의 경제 태도 뒤이어 EU의 정치 색채, 이란, 베네주엘라도 위험요소 산재

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2. 중국의 해외진출 야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빛나는 2017년을 보냈다. 권력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면서 이젠 마오쩌둥 이후 가장 막강한 중국 지도자로 올라섰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새 지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한 205년의 연설로 판단할 때 관중석에 앉아 있지는 않을 듯하다. 보란 듯이 힘자랑을 할 것이다. 그는 연설 중 “대국”과 “강국”이라는 용어를 26회 사용했다.

시주석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에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혼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일대일로 정책의 깃발 아래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할 듯하다. 때때로 상당한 부대조건이 따른다하더라도 대다수 국가들은 이런 돈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베이징 정부는 또한 해외의 동조적인 정치인과 단체들을 후원할 것이다. 이 같은 전술에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모두 동원할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미국이 견제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예의 주시할 듯하다.

3. 트럼프의 무역협정 개정노력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곰찍한” 무역협정에 관해 불만을 늘어놓더니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그것을 핵심 테마로 삼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무역에 관해 말만 많았을 뿐 실효성 있는 조치는 별로 없었다.

물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한미자유무역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지는 않았다. 모두 선거 유세 중 시행하겠다고 시사 또는 약속한 조치들이었다.

곧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백악관은 중국의 악랄적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의 NAFTA 개정 요구는 캐나

미국의 통상 파트너들이 보복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맞대응 조치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 한 사실은 미국의 일부 수출 업종이 타격을 입으리라는 점이다.

4. 물러 특검 조사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마녀 사냥”으로 부르며 그의 선거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주장을 “가짜 뉴스”로 일축한다.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의 국가 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연방수사국(FBI)에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트럼프 선거본부의 조지 파파도풀로스 보좌관도 마찬가지였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미국, 이제 생명 존중 문화로 돌아섰다!

〈1면에서 계속〉

첫째 업적은 미 연방대법원 판사에 낙태 반대자인 닐 고서치 판사를 임명한 거였다.

두 번째 업적은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시행하고 홍보하는 이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공금 지원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업적은 “미 법무부가 가족계획협회의 불법적인 태아 조직매매 계획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한 거였다.

이 단체는 임신 말기의 낙태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보호법’과 같은 낙태반대법안의 지지를 트럼프의 네 번째 업적으로 꼽았다.

다섯 번째 업적은 각 주들로 하여금 가족계획협회를 계속 지원하도록 강제한 버락 오바마 시절의 법안들을 폐지한 거였다.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낙태 반대 인사들을 임용하고, 가장 잡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것을 여섯 번째 업적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다른 기관들 내에서 태아 보호를 위한 낙태반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는 점이 일곱 번째 업적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오바마케어를 통한 피임약 지원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트럼프가 보호한 것을 꼽았다.

“아직도 많은 전투가 남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정부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태아의 인간성을 수호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라고 뉴맨 회장은 말했다.

오퍼레이션 레스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9개의 낙태클리닉이 문

을 닫았다. 2009년 이래 미국 내에서 낙태 시설의 전체적인 숫자는 17% 감소했다. 1991년부터 2,176개의 낙태 수술 시설들이 있었는데, 현재 23%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자유주의가 지배하며 낙태가 산업화된 미국에서 어떻게 낙태율이 낮아질 수 있었을까?

첫째 이유는 의사들이 낙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 환경이 잘 돼있어서 낙태로 돈을 벌어야 하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의료윤리를 지킬 수 있다. 현재 미국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낙태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의 비율이 80%가 넘는다(대부분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에서 시행).

둘째 이유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홍보와 투쟁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민의 생명의식이 개선됐고 서서히 낙태허용 입장에서 낙태반대 입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프로라이프 의견을 가진 사람이 프로초이스 의견을 가진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역전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낙태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이 취했던 사람들은 줄어들고 개인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셋째 이유는 보수정치인들의 우세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의원이 훨씬 많은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둘 중의 하나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낙태 규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도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에 새로 생긴 낙태규제법안이 205개이고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에 생긴 법안보다는 많은 양이다.

마지막으로,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의 주인공 노마 매코비(가명 로우)의 심경 변화와 항소 제기를 소개한다. 어쩌면 보통 미국인들이 바라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매코비는 나중에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1973년 노마 매코비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주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대는 텍사스 주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였다. 결국, 이날 미국 대법원은 노마 매코비와 여성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당시 미국 내에서 이슈화되면서 미국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시발점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월 17일은 미국에서 낙태 인식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낙태 합법화의 시발점이 됐던 노마 매코비가 32년 만에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며 낙태 후회 발언을 한 것이다.

노마 매코비는 항소장에서 “나는 낙태 후 아이의 생명을 없애 것에 대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판결 이후 낙태를 했던 여성들과 생명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며 “이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함을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며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한 돕고 싶다”고 고백했었다.

결국 미국인들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권리라고 외쳤지만, 이제 미국은 뱃속 아기의 희망이 돼주는 사회로 돌아서고 있다.

‘셀프 리더십’으로 다져지는 공동체 만들기

〈1면에서 계속〉

이런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리더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셀프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다음의 셀프 리더십을 위한 11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변화할 때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1. 소명: 나의 달려갈 길은 명분한가?
크리스천이라면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여쭙보아야 한다.

2. 비전: 나의 미래상은 명확한가?
리더의 미래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미래로 이끌 수 없다. 리더 스스로의 미래상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열정: 나는 무엇으로 열정을 유지하는가?
리더는 주변 사람에게 마음껏 주고도 남을 만큼의 활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리더 스스로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인격: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
사람들에게서 오랜 헌신을 이끌어내는 리더는 도덕적 권위가 있는 리더다. 자신의 인격을 먼저 수양해 겉과 속이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

5. 겸손: 나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벧전 5:5). 리더는 팀원들과 동료들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6. 용기: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리더십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7. 내면: 나는 마음속에 쌓이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내면의 실상을 외면하는 리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자주 내린다. 리더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8. 성령: 나는 성령님께 언제나 귀를 열어두는가?

리더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성령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9. 속도: 나는 지속가능한 속도로 일하는가?
지속할 수 없는 속도로 일하다가 탈진하고 멈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리더 스스로 지속 가능한 속도로 일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10. 은사: 나는 영적 은사를 최대한까지 개발하고 있는가?
모름지기 리더는 자신의 영적 은사에 대해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11. 사랑: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해야 성경적인 리더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커지도록 애써야 한다.

‘2018, 지구촌 최우선 외교정책 7가지를 주목하라!’

〈2면에서 계속〉

물러 특검은 또한 트럼프의 선대본 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매너포트의 사형 파트너이자 트럼프 선거본부의 운동원 릭 게이츠를 기소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전례 없는 헌법 위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5. 시련에 빠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포위당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자유도 순위만 봐도 전 세계의 자유가 10년 이상 악화돼 왔다. 태국과 터키 같은 신흥 민주국가가 권위주의 체제로 다시 퇴보한 것도 심각하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상당수 서방 민주체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체제 내 폴란드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바르샤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스페인에선 카탈루냐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 전역의 중도파 정당들은 양극단의 정당들에 표를 잃고 있다. 전통적인 중도 좌파 정당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프랑스·오스트리아에서 굴욕

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의 최근 선거가 보여주듯이 중도우파 정당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탄탄한 양당제를 유지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전성기는 한참 지난 듯하다. 의회는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트럼프는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적 규범을 걸밟하면 위반한다. 많은 미국인은 반대 정당원들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니 요즘 미국을 “흠결 있는 민주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정부들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공정 선거를 저해하려 힘쓰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끝나는 건 아니다. 민주국가의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는 떨어졌지만 변함없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그런 부정적인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더 “반자유적인 민주체제”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 힘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할지는 국민의 몫이다.

6. 이란의 지역 패권 추구
이란 지도자들은 지난해의 지역 정

세변화에 만족감을 표시했듯 하다.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국내 권력 기반은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마찬가지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시아파 국가 이라크 정부는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시를 탈환했다. 시아파 후티 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멘의 수렁으로 끌어들이었다.

이 모든 변화에서 이란 개입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지역 전반에 걸쳐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이 순전히 테헤란 정부의 공 인 것만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 미스도 한몫했다.

수니파 국가 사우디 정부는 무분별했던 예멘 모험 외에도 카타르가 이란에 동조하고 테러를 후원했다며 그 나라에 대한 통상금지 조치를 주도했다. 그로 인해 카타르가 이란 쪽으로 기울면서 위상된 정부에 외교적 고민을 안겨줬다(미군의 중동 최대 공군기지가 카타르에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이란 악영향의 무력화”를 다짐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란은 어디서든 기회만 보이면 이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목회와 성경공부(중)

한국교회 성경공부 역사

한국선교회는 1884년 7월 메를레이의 내한과 병원과 학교사업을 개시해도 좋다는 고종의 윤허, 1884년 9월 20일 의사 알렌의 내한,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을 통해 한국 땅에 상륙함으로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성경공부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들이 모두 성경공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선교회의 문이 열리기 전인 1876년에서 1884년에 이르는 8년 여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1876년 병자수호, 임오군란,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정치변동과 사회 혼란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에 부응할 만한 종교는 부재 상태였다.

물론 전통종교인 불교나 유교가 있었지만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교로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1,500여 년간 숭상해온 유교나 불교의 경전 역시 민중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다가서기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지참한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했다.

1887년 아펜젤러는 자기 집에서 배재학당 학생 한 사람과 젊은 관리 한 사람을 비밀리에 모아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1888년 1월에는 이화학당에서 처녀 12명과 부인 3명이 모여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8년 10월 스코랜튼 부인은 12명의 지원자를 모아 공주반과 성인반으로 나눠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가 하면 1890년 언더우드는 자신의 집에서 7명을 모아 성경을 가르쳤다. 거기서 성경을 공부한 백용준, 서상륜, 최영호는 한국 최초의 유급교역자로 임명되었다.

1909년 북장로교 선역구역에서만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800여 차례의 사경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사경회는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평양, 선천, 재령, 강계, 대구, 동래, 안동, 충주, 전주 등 그 당시 신자 총수인 117,000명 중 65%에 해당하는 76,000명이 참석했다. 사경회 기간은 15-30일이었고, 거리나 계절을 개의치 않고 모여들었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경공부 역사를 조망해볼 때 든든한 교회, 다움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세움을 위해 성경공부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나의 성경공부론

1978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 교수였던 주선에 교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연예인(현 운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등과 회동하고 한국교회의 성경공부운동의 재건과 교재연구 및 개발에 합의하고 서성한 목사를 실무자로 위촉했다. 그 당시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모두 구입하고 수시로 모여 토론과 협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필자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 안에 성경공부 교재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자가 위원장 직임을 책임졌다. 위원회는 목회자들과 신학대학교 교수로 구성했다. 현재 통합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공부 교재 ‘복음과 삶’은 위원회가 낳은 산물이다. 교재 개발을 위해 적지 않은 사비를 투자하기도 했다.

앞글에서 이야기한 대로 균형목회의 실현을 위해 영성 개발을 위한 새벽기도회, 금요철 야기도회를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성경공부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물론 시작은 미약했다. 지하 다락방에서 7-8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가 점차 발전해 700-800명으로 불어나는가 하면, 지역별 그룹을 만들어 성경공부에 전력투구했다. 수요일 저녁 역시 주제별로 교재를 만들어 성경을 공부했다. 그것은 성경공부의 열매를 세계 기독교사가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성경공부와 삶의 괴리였다. 한국교회의 경우 신앙과 삶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고 깊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공부를 만날 기독교 지식 습득의 도구로 여기고 유명하다는 성경공부 모임을 편력하는가 하면 화려한 경력으로 치부하는 유행병이 번지고 있었다.

필자는 이점을 철저히 금하고 삶에의 적용을 강조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공부가 기독교 지식주의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고, 그들은 그 지식 때문에 교회를 교회로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이해나 성경 지식 습득을 위해 평신도가 신학을 전공하는 것을 필자는 장려하지도 않았고 추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성경공부는 가능한 한 교회 내의 자원을 동원하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amcspark@hanmail.net

휴스턴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1.5세대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3. 정규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 (M.Div 학위이상)
4. 목회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초등학교 부터)
2.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회분.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인. (2인)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8년 1월 31일. (당일 도착분에 한 함)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cbcoffice@gmail.com Http://saenurichurch.org
9560 Long Poing Rd., Houston, TX 77055



목장일기

아무리 큰 꿈이라도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맨 손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망망함을 느꼈다. 그는 매일 교회당에 나가 기도를 드렸다. ‘주님! 그 흔한 복권이라도 내게 한 번만이라도 허락하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액의 복권을 잘도 주시면서 왜 제게는 안주십니까?’ 한 날은 주님께 집요하게 따지며 기도했다. ‘도대체 제 기도를 들으시긴 하시나요?’ 주께서 즉각 응답하셨다. ‘그래 내가 매일매일 너의

안타까운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런데 넌 적어도 복권 한 장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라.

모든 계획은 바빠지고 청사진일 뿐이다. 목회의 전략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야무진 계획을 세웠을 지라도 당장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지개의 꿈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또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 당장 하나라도 행동하는 것이 천개

의 꿈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토론토 목회를 떠나 뉴욕 목회를 시작하면서 포코노수양관에서 금식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뉴욕 목회의 비전 다이어그램을 받아 적었다.

교회의 3대 기능을 크게 ‘알찬교육’ ‘널리선교’ ‘고루봉사’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배우든지 가르치든지’(Learn or Teach) “가든지 보내든지”(Go or Send) “섬기든지 나누든지”(Serve or Share) ... 의 행

동 구조도 적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해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이루고 싶었다. 이 교육의 현장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목회가 되어야 했다. 당연히 현장이 필요했다. 갓 태어난 영아들을 위한 맘앤티 학교를 시작으로 프리 킨더가든(유아원)과 너서리스쿨(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크리스천 데이 스쿨을 세우고 더 나아가 크리스천 대학과 기관들을 연장해서 ‘집에서 길러주고 훈련된 318명의 하늘리더들’(창14:14)을 길러내는 꿈을 그렸다. 이 비전들을 위해 넉넉한 공간이 필요했다. 때를 맞춰서 21에 이커의 땅도 주셨다. 모든 비전들이 속속히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흥분하며 기다렸지만... 야속한 기다림의 시간들은 18년을 넘어서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동네 처녀

민지 않았기에 장가 못한 노총각 신세는 면했다.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하나 시작하며 운영했던 비전들이 지금 와서 헤아려 보니 70% 이상은 이미 실현되었다. 나머지 굵직한 비전들 몇 개는 한창 산고 중에 있으니 출산도 곧 멀지 않았으리라 기대한다.

아쉬움과 보람된 일 하나씩만 간단하게 소개한다. 땅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세워만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비전이었다. 20년 전에는 뉴욕엔 이런 단어조차 없었다. 그 때부터 한 걸음씩이라도 실행했어야 했는데 보다 좋은 새 환경에 들어가면 하겠다고 미루는 사이에 지금은 뉴욕의 한인타운 군데군데에서 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와 어덜트(성인)케어 센터 사업들이 성황리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아무리 큰 꿈인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뿐임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놓친 고기보다는 얻은 고기들이 더 많아 감사한다. 14년 전에 시작한 ‘뉴욕실버미션’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큰 기쁨과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600여 명의 뉴욕의 시니어들에게 세계선교의 비전을 심었고 연인원 700여명의 실버 단기 선교사들을 배출한 가운데 현재 13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남은 생령 바쳐 주님의 ‘널리선교’의 비전을 자비방으로 이루고 있으니 이 감사를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오는 가을학기부터는 뉴욕주 당국으로부터 정식 데이스쿨 인가를 받아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주님 나라의 어린 새싹들을 믿음의 리더들로 키워나갈 크리스천 데이스쿨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큰 꿈이라도 작은 것부터 지금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jkym47@gmail.com

푸/른/초/장

이만호 목사

(뉴욕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네카는 “다른 학문 예술에는 얼마든지 스승이 많지만 인생이란 예술에는 스승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음악에도, 그림에도 스승이 많습니다. 운동에서도 스승이 많습니

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책임질 스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삶을 안내해줄 수 없습니다. 페스탈로찌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답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로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앞날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2018년도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1.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27).

세상 따라 살면 실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 않고 빼앗아 갑니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술잔이 결국 그를 삼키게 되고, 놀음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그를 삼키게 되며, 죄악과 음란하는 자는 그것이 결국 그

를 삼키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이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작은 마귀의 줄이 연결되어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만 얻고, 받고, 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며 권고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인도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려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사랑하여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2.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령과 함께 살자

(요한복음 14장 25-27절)

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려가고 도덕적으로 내려가고 양심도, 믿음도, 은혜도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니 그의 인생에 전반이 다 내려갔습니다.

둘째는 성전을 떠나가면 강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다 빼앗깁니다.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회 밖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6:18에 주님은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러분에게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늘 말 하십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앗수르 군사를 다 물리친 것처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건강 주시고 앗수르 군사같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권력과 부유한 사람과 손잡지 않고 항상 성령과 손잡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조지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한 청년의 동상이

하여 무릎 꿇던 그 자리를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시편 50:15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있게 하십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꿈이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4.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며 일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짧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년이 짧듯이 인생도 짧습니다. 한평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일하며 달려가십시오. 주님도 세례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신앙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자주 패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움직여야 합니다. 죄악과 세상은 여러분을 묶어 둡니다. 성령은 담대하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usfgc@hotmail.com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1775년 12월 추운 겨울날 영국군과 미국의 독립군들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모든 군인들이 허기에 지치고 추위에 견딜 수 없이 다 쓰러져 가자 사령관인 워싱턴이 숲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이것을 남겨야 한다”고

틀타지 못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마귀가 길 아닌 길로 인도 합니다. 아픈 상처의 길, 방탕과 저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생활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봉사하며 복 받으십시오.

3. 성령과 함께 살려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하러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여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M.Div 신학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박사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교도 (USDE) OPE ID: 0352830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점령지의 98%를 잃은 ISIS 이슬람 테러단체들!

아시다시피 지난 8년간 미국은 전 오바마 대통령 지휘아래 급격히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 안에서 리포트 된 무슬림으로 인한 테러사건들만 해도 2015년 한 해 동안만 3건이 터져서 수많은 무고한 미국시민들이 사망하고 다쳤으며, 2014년에도 미국 안에서만 7건의 치열한 지하디스트의 공격이 있었고 그 결과로 8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New America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 중 한 사건만 미확인되었고, 나머지 여섯 번은 ISIS와의 연결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2014년 이후 총 12번의 ISIS와 연관된 공격이 미국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디어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기독교인들과 약속한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12월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워싱턴 그리고 미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급진적 무슬림 단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ISIS 테러에 연결된 단체나 정치지도자들을 미국 안에서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아래 reference 내용 참조).

트럼프는 이 발표 후 즉각 시행에 들어가 백악관 안에서부터 미국전역에 걸쳐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잘 알려졌던 “Muslim Brotherhood(MB, 무슬림 형제단체)”와 “CAIR-Council of American-Islamic Relation” 단체들과 정치지도자들을 검토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며 그동안 전 오바마 정부와 연결됐던 위와 같은 이슬람 단체들과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금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ISIS는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점령지 및 영토의 98%를 잃어버리고 테러 조직의 소위 “caliphate-칼리프”라고 자칭하던 극단주의 테러자들 절반이 다시 체포됐다고 미군 관리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미 공군중장 David Deptula는 말하기를 “오바마 행정부 때는 ISIS와의 전쟁을 하러 나간 미 군대에 지나친 세부규칙을 만들고 비효율적인 탁상공론들만 강조해서 실전에서 미군들이 전쟁하는 것이 너

너들이 힘을 합쳐 지하드 테러범들을 7만 명이나 몰살시키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남은 ISIS 중심지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부근의 아주 작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때는 ISIS가 오하이오 주만한 지역

는 기억하며 아래 기도제목들 가지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17-22의 기도가 모든 교회들과 성도, 리더들에게 이루어지길

△더 더욱 말씀의 깊은 뿌리가 교회와 우리 삶속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의 거짓된 정보와 내용에 “두려움”이나 “흥분”으로 반응하지 않고 “분별력”과 “예수님의 빛”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영적 전쟁을 최전방에서 치르고 있는 모든 리더들(기독교, 사회, 문화, 정치)이 지치거나 물러서지 않고, 미국 안에 들어온 모든 죄들과 죄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충성된 주님의 종, 국가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히12:1-5).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고전12:12-14).

참고 내용:

○ 이슬람 테러 조직 “Muslim Brotherhood(MB)”들을 금지시키겠다는 트럼프:

http://tvnext.org/2016/11/muslim-brotherhood-terrorist/

○ 꼭 알아야 할 오바마의 친이슬람 정책과 미국 안에 내러진 이슬람 뿌리: http://tvnext.org/2016/12/obama-muslim-nominatio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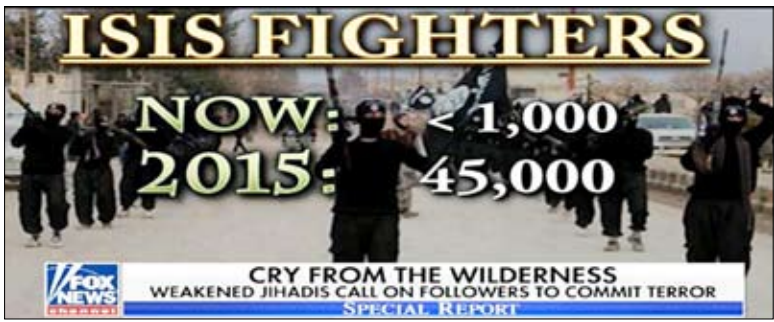
○ 호주가 거부한 무슬림 난민들을 미국에 입국시키기로 한 오바마 행정부: http://tvnext.org/2016/11/muslim-refugees-australia/

○ 캐나다를 무너뜨리고 있는 친이슬람정책과 미국의 상황(상): http://tvnext.org/2018/01/canada-pro-islam-law-1/

○ 캐나다를 무너뜨리고 있는 친이슬람정책과 미국의 상황(하): http://tvnext.org/2018/01/canada-pro-islam-law-2/

○ 종려주일의 테러공격을 기도하고 인내로 이겨나가는 이집트 콕트 교회: http://tvnext.org/2017/04/egypt-coptic-church-bombing/

sarahspring2009@gmail.com



무 힘들었었다. 당시 오바마 정권은 ISIS와의 전쟁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항공 전략들을 피하라고 매번 명령하고 백악관에서 미군의 전략에 제한 조치까지 취한 결과 너무 많은 작전실행 시간이 소모되곤 해서 미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었다...

당시 백악관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3개월이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ISIS가 통제 하던 석유 공급소를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 내리는 데만 2014년 이후 15개월씩이나 걸렸기 때문에 ISIS들은 그 사이에 수백만 명을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노예삼기 위해 꼭 필요한 전쟁자금 8억불을 만들 기회를 결국 미 정부는 당시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당시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 평가에 따르면 현 미 정부의 ISIS 테러단체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인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ISIS 전투자들이 불과 2년 전만해도 4 5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겨우 1천 명 미만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정부는 3만 명의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과 지역 파트

를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겨우 채 1년도 되기 전에 ISIS 테러를 이렇게 시원하게 격퇴하는 놀라운 진전은 참으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발표하기를, 지난 일년간 ISIS가 크게 패배한 반면, ISIS는 그들을 따르는 테러범들에게 계속 테러 공격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 도 카불에서 자살 테러 공격이 있었기에 ISIS 테러에 대한 정책은 계속하여 강력히 행해질 것이라고 미국무부의 Brett McGurk는 국무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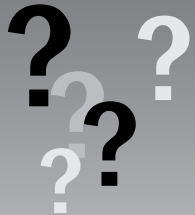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지금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온 세계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가는 영적 전쟁 속에 있기에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과 거짓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재작년에 교회에서 터키의 갑바도기아와 데린 구유 그리고 로마의 카타콤을 방문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던 동굴이나 벽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시대는 주로 어느 황제 때 가장 심했으며 물고기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 권 기사

A: 초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로마 황제는 네로 그리고 도미티안, 그리고 트라얀 황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었습니다.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돌리고 기독교와 연류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 투옥시키고 그 대부분을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일부는 털옷을 씌워 개나 사자들이 물어 찢어 죽이게 하였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렇듯 로마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보장것없이 여겼습니다. 이 네로 황제 핍박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였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 “주(主)이자 신(神)”(Lord and god)으로 불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로마에 금은 흉상을 만들어 자기를 숭배케 강요했습니다. 계시록

초기 기독교 핍박한 로마황제는 네로, 도미티안, 트라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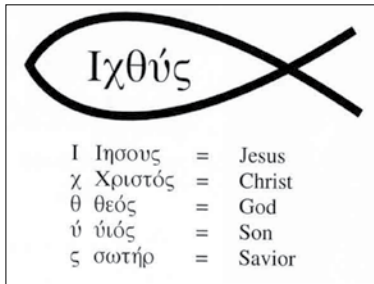
의 저자인 사도요한은 이때 황제숭배를 거부하다가 밧모섬에 귀양을 갔습니다.

트라얀(Trajan, 98-117), 그는 자칭 최고의 원수라고 칭송하고 황제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밀결사대라 오해하고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다고 박해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고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때문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해로운 단체로 지목되어 합법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는데 만약 발각되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졌다고 합니다.

종독 플리니는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가 완악하고 터무니없는 미신이지만 은밀한 범죄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 새벽 남이 다 잠자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을 쫓아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여기며 찬미했으며 도둑질과 강도질과 배교와 음행을 삼가자고 서약함으로 그들을 결속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집사라고 하는 두 하인을 잡아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미신이라는 것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120세의 시므온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안디옥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었고 소지무스와 루프스도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딴 곳에서 자주 만나고 처음 만날 때는 서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암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인 암호가 물고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물고기란 단어의 헬라어가 “익수스”인데 그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을 말합니다.



초대합니다

OC 장로협의회 회장, 이사장 이 취임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셔서 축하와 격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18년 2월 4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참빛 장로교회

7378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el. 714.514.3913

OC 장로협의회 회원 일동

문의: 회장 한향운 (714.383.5303) 이사장 김도영(714.452.3006) 중무 강신옥 (714.349.4002)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리프트코 풀라(LIPTAKO FULA)



서부 아프리카로 이주해왔다. 오늘날 그들의 대부분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항상 이주하는 준유목 가족 사육자들이다. 사하라 사막은 그들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 어주며 췌체 파리(tsetse flies)는 그들의 남방 이주를 제한해준다. 수년에 걸쳐 풀라니 종족의 일부

는 전임 목동의 삶에서 벗어나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학문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 풀라니 종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과 방언, 직업에 따라 분류되어 지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 리프트코 풀라니족은 말리 중부 마시나(Macina) 지역과 부르키나파소 북부에 사는 풀라니족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들은 근처의 다른 아프리카 종족들에 비해 더 열은 피부색과 얇은 입술 그리고 더 곧은 머리카락을 가졌다. 이로 미루어 이들의 근원은 백인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언어는 니제르-콩고 언어인 마시나어(Masina)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마시나(Macina) 지역의 무더운 열대성 기후는 우기와 건기의 두 계절을 조성해주며 이러한 기후적 조건이 리프트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한다. 그들은 농경과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는 준유목민들이다. 연중 4개월가량 지속되는 건기 중에 젊은이들은 소떼, 양떼 그리고 염소떼들을 몰고 양질의 목초지를 찾아 물이 풍부한 평원들을 옮겨 다닌다. 그들은 장대나 나뭇가지를 세우고 지푸라기와 나뭇잎 또는 돗자리로 가려 만든 간이 막사에서 야영한다.

젊은이들이 가족 떼를 몰고 다니는 동안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은 가족의 연장자들과 함께 집에서 머무르면서 채소밭을 돌본다.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지만 주된 곡물은 쌀과 수수이다. 말, 나귀, 닭 그리고 개 따위의 가축들도

농가에 함께 산다.

우기철에는 가축들과 가축들은 함께 마을에 머무른다. 컴파운드를 구성하는 대가족들이 모여 촌락들을 이루는데, 리프트코 사람들은 휘어지는 장대와 초가지붕을 지지하는 중심 기둥으로 집을 짓고 컴파운드 주위에는 가시 담장을 둘러친다. 유목민이든지 정착민이든지 모든 리프트코 공동체는 장로의 감독을 받으며, 장로는 마을 광장의 중앙에 사는 마을 촌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리프트코 풀라니족에게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우유와 염소 젖은 식단의 주요 부분이며, 버터를 만들어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중요한 축제나 의식이 있을 때만 육류 섭취가 가능하다. 리프트코 사람들은 뿔이 길고 짧은 가축 모두를 사육하며, 양 또한 가축과 양모를 얻을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양을 먹인다. 양모 양은 주요 교역물이며 소유주의 경제적 지위를 나

타내 주기도 한다.

풀라니족에게 있어 무용, 옹골성, 그리고 힘은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은 “샤로(sharo)”로 알려진 리프트코족의 흥미진진한 풍습에 나타난데, 이 풍습은 젊은 남자의 성인됨을 시험하는 것이다. 만약 두 젊은이가 한 처녀에게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둘 중 조금 덜 집요한 구혼자가 제거될 때까지 작대기로 서로 때려야 한다.

신앙

리프트코 풀라니는 거의 모두 무슬림들이다. 이슬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기초를 가르친다. 그러나 장로들은 종족적 가치와 전통을 가르칠 책임을 진다. 장로들은 자기 종족의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풀라니족에게 있어 어린이들은 바로 그들의 미래이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

므로 어린이들이야말로 그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외양이 유지된다고 믿는다. 아이가 없이 죽는 것은 풀라니에게 있어서는 두 번 죽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미 리프트코어인 마시나어(Masina)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있고, 기독교 방송과 ‘예수’ 영화도 제작됐다. 현재 7개의 선교단체가 리프트코족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으나 그리스도도를 영접한 사람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교회 84% 페이스북 계정 있다

미국 교회의 84%가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계정을 마련해 정보제공과 선교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회 10곳 중 7곳 정도는 교회 내에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독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점’을 주제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교회를 가운데 인터넷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계정을 둔 곳은 각각 84%였다. 이어 문자메시지 서비스(40%) 트위터(16%) 인스타그램(13%) 등 순으로 활용한다고 중박 응답했다. 페이스북 계정을 둔 교회는 2010년(47%)보다 37% 포인트나 늘었다.

교회가 이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9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회 성도들과 소통(87%)하고, 교회 밖 사람들과 소통(86%)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84%)라고 중박 응답했다.

온라인 헌금을 허용하는 교회도 증가 추세다. 교회 10곳 중 3곳(30%)이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헌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010년(14%)의 배 수준이다. 교회가 클수록 온라인 헌금 비중이 높았다. 성도 수 250명 이상인 교회 가운데 74%가 온라인 헌금을 시행하고 있고, 100~249명 수준 교회는 39% 정도였다. 100명 이하 교회는 23%였다. 이밖에 교회 10곳 중 7곳 정도(68%)가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취임 1년...평가 엇갈리는 미국교회

20일 취임 1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기독교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안겼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하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보수·진보 진영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치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년의 미국 기독교계를 되돌아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음 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권을 주축으로 한 미국 내 보수 기독교 진영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당선됐다. 취임하자마자 보수 교계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공석이었던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의 닐 고저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4대 4로 보수·진보가 균형을 이루던 연방대법원의 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모두 보수 기독교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이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사회 내 기독교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 이면에 거센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다. 교회가 낸 성도들의 헌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헌금이 특정 종교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 안팎에서 제기됐다.

지난 연말 취임 후 처음 성탄 시즌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s)’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 표현을 고수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기독교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 하지만 트럼프의 ‘메리 크리스마스’ 표현은 주



된 지지층인 복음주의자들을 비롯해 기독교 보수 진영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계의 공분을 자초한 사안은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었다. 대표적인 기독교 에큐메니컬(교회일치연합) 진영인 WCC(세계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세계 난민을 향한 긍휼과 책임을 내팽개친 실책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선언은 종교 갈등의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9일 이민정책회의에서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향해 ‘동풍’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우군인 복음주의권 교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해 현지 교계 보수 진영에선 “기독교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적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이자 대표적 복음주의권 목회자인 그는 지난해 9월 북핵 문제 등에 강경 입장을 밝힌 트럼프의 유엔 연설 내용을 두고 “나와 함께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다수의 정의로운 자들이 소수의 사악한 자들에게 맞서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일깨워줬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예전하다. 일국의 지도자가 기독교의 순수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계 내부의 갈등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총무를 지낸 박성원 경안신학대학원대 총장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뺄지 모르는 즉흥적 정치를 하다 보니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내 보수와 진보 기독교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를 지낸 안재웅 한국YMCA유지재단 이사장은 “세계교회도 미국의 일방주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있는 현지 교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서면서까지 약자를 보호하려는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마치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USA투데이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중부연합감리교회(질 존텔 목사)가 알바니아로 쫓겨나게 된 불법 체류자 데드 랜스버그(48)를 보호 중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랜스버그는 2001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아내 플로라(44)가 중추신경계 면역질환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뒤 임시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 이민관세사무소(ICE)는 그가 지난해 10월 밀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

ICE 결정에 따르면 랜스버그는 오는 25일 본국 알바니아로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 플로라의 유일한 보호자다. 플로라는 외병을 이유로 추방되지 않지만, 혼자서는 요리도 사워도 할 수 없다. 랜스버그는 “이렇게 아픈 아내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사정이 알려지자 중부연합감리교회가 팔소매를 걸었다. 존텔牧사는 “이들은 테러리스트도 아니며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면서 “교회를 파란치 삼는 이들을 섬기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CE가 교회로 들어와 랜스버그이를 체포하려 한다면 교인들이 SNS에 생방 송으로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끝까지 랜스버그가 가족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들은 16일 중부연합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했다.

앞서 현지 한국계 이민교회들도 국경을 초월한 사랑에 동참했다. 지난해 3월 미국 이민교회 관계자들은 뉴욕 플러싱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교회들이 체포와 추방의 공포로 떨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의 피난처가 돼 주자”고 호소한 바 있다.

트럼프의 '10대 가짜뉴스 상', NYT 크루그먼 칼럼 1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17일 여러 차례 예고해온 ‘가짜뉴스 상(賞)’을 마침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NYT)에 실린 폴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을 최고의 가짜 뉴스로 꼽았다. 크루그먼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증시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이날 사상 최초로 2만6000선을 돌파했다.

이어 가짜 뉴스 2위로는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폴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러시아 관리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ABC 방송 보도가 꼽혔다.

3위는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민주당 내부 ‘문건 공개’전에 조선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문건 공개 후’ 메일을 받았다고 정정한 CNN방송 뉴스였다. 4위는 대통령 집무실 안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흉상이 치워졌다는 타임(TIM)지 보도였으며, 5위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집회가 텅 비었다는 트윗을 올렸던 워싱턴포스트 뉴스였다. 10대 가짜 뉴스 가운데 CNN 보도가 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NYT 보도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짜 뉴스 상이 게재된 공화당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끊기기도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의 90% 이상이 대통령에게 부정적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7년은 무자비한 왜곡과 불공정한 언론 보도, 심지어는 명백한 가짜 뉴스의 한 해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러시아와의 공모”라는 말 자체가 미국민들에게 잘못 전파된 가장 큰 가짜 뉴스다. 공모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우 타락하고 부정직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만한 기자들이 여전히 많으며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좋은 뉴스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영국에 ‘외로움 담당’ 장관 생겼다...

영국 정부가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다. “고독은 흡연이나 음주보다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을 위협하는 ‘사회적 전염병’인 고독에 맞서기 위해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6일 트레이시 크라우치(사진)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다. 메이 총리는 브리핑에서 “고립감은 많은 현대인에게 슬픈 현실”이라며 “우리 모두 이 도전에 맞서서 노인과 장애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들은 크라우치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그룹을 이끌고 통계자료 확충 및 정책 개발과 시행, 시민단체 지원 등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내에서 고독이 질병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데는 2016년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반대를 주도하다 살해당한 노동당 조 콕스 전 의원의 역할이 컸다. 사망 후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려 설립된 ‘조 콕스 고독위원회’는 그간 외로움을 국가적 문제로 대처하자는 캠페인을 주도해 왔다.

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고독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900만명에 달한다고 집계하면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또 “고독은 개인적 불행에서 사회적 전염병으로 확산됐다”며 고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련 복지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고독과의 싸움’을 진두지휘할 크라우치 장관은 “콕스 전 의원의 열정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받는 것

이 그를 기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며 “외로움 극복에 전진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녀 13명 감금한 美 부모 붙잡혀

여느 휴일과 다를 것 없던 일요일 오전 6시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911 신고센터에 한 소녀가 부모로부터 홀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스스로 17세라 밝힌 소녀는 로스앤젤레스 인근 페리스에 있는 집에 자신의 남매들이 갇혀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다.



신고된 주소지로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에 감금돼 있는 남녀 12명을 찾아냈다. 2세부터 29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이중 7명은 18세가 넘는 성인이었다. 몇몇은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 신고한 소녀 역시 10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갸마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시외에서 발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부부가 홈스쿨링을 하던 자녀들을 한 방에 성인이 되도록 감금해둔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 자녀들은 어둡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 갇혀있었다. 매우 지저분한데다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앙상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물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모인 데이비드 엘런 터핀(57)과 루이스 안나 터핀(49)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자신들이 왜 자녀들을 감금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들의 보석금은 각각 900만 달러로 책정됐다.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LAT는 해당 주소지가 홈스쿨링 학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평범한 1층 높이의, 적갈색으로 페인트칠 된 주택이다. 용의자이자 자녀들의 부친인 데이비드 터핀이 학교 교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등록된 학생은 6명이었다. 남매들의 조부모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주들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건 알았지만 4-5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역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아이들이 보였지만 수년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털어냈다.

이들 부부는 두 차례 파산 신고를 한 전력이 있었다. 2010년 당시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LAT에 “매우 친절한 사람들로 생각했다. 단지 재정 문제를 겪고 있을 뿐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남매들의 부친인 데이비드 터핀은 록히드마틴 등 국방 기술 관련 업체에 근무하며 고소득자였음에도 13명이나 되는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펜스 미 부통령 “내년 말까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2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내년 말까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 의회에 참석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 이전 준비를 시작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사관 이전의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을 맞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세계의 고위 인사가 ‘세 단 어(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담당하 임에 올리는 처음”이라며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역사적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지금까지 강했던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기존 규정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앞으로 미국대사관 이전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42. 노신태(이진묵(1906-?))

이진묵은 1906년 서울 평륜동에서 태어났다. 평양 진관리교회를 다녔고, 1924년 ‘청년들의 양의 남심자를 삼가라’라는 주제로 평양 신양리 유년주일학교가 주최한 유년주일학교 남녀옹변대회에 참석했다.

평양 광서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31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평안남도 강서군 신정시의 사립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1934년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 후 평안북도 영변의 송덕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했고, 경기도 4H 청년 구락부 이사로도 활동했다.

1936년 12월 31일 이진묵은 유학차 용전환 선편으로 도미하여 이민국을 거쳐 이듬해 1월 4일 상항에 입항하자마자 버클리의 태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1937년 1월 이진묵이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한국교육의 목적과 발전”이라는 강연을 하였는데 일반 청중에게 많은 각성과 유익을 주었다고 한다. 그해 1월 24일 주일에 모인 국어학교 학부형회는 이번 학기에도 국어학교를 계속하기로 하고 2월 5일에 국어를 가르치기로 하고 이진묵을 고빙하였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동포의 수효는 적었으나 그들의 각종 사회 사업에 대한 열성과 시설은 다른 지방 보다 앞서 국어학교도 학생이 적으나 이미 설립하였고 2세에게 국어를 가르쳐왔다. 뿐만 아니라 1937년 1월 24일 이진묵은 주일학교 교장으로 초청받아 주일학교도 가르쳤다.

상항 한인교회

국어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교장

으로 초빙 받던 1937년 1월 24일 이진묵이 상항한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그날 저녁 7시 반에는 엠넷 청년회에서

강연까지 하였다. 그 해 3월 28일 부활절 주일에 이진묵은 본 교회에서 일반 동포가 많이 참석한 가운데 ‘중생’이라는 주제로 특별 설교를 하였다. 이 날 어린이들과 청년 남녀들의 아름다운 음악과 찬가는 심령의 부활과 정신의 윤패를 아울러 큰 만족을 주었다. 예배 후에는 다과와 이스터 달걀을 일반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리 목사

1937년에 그는 한인남감리교회 제사회에서 전도사로 공천되었다. 1939년에 오클랜드 한인교회의 임정구 목사가 병환으로 임원하자 그 해 12월 28일 상항한인교회 황사선 목사가 오클랜드 감리교회의 담임이 되고 이진묵은 지방전도사 자격으로 본 교회를 사역하게 된다.

그는 1940년 9월까지 10개월간 본 교회를 섬겼고, 대리 목사라는 명칭을 가졌다. 1939년 오클랜드 한인교회의 등록 교인은 사도교회

와 합쳐서 85명이었고 주일학교는 23명이었으며, 1940년에도 사도교회와 합쳐서 등록교인이 70명이었고 주일학교는 20명이었다.

나성 한인감리교회

1940년 9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신임목사 이진묵과 전임목사 황사선을 위한 전별식과 환영식이 나성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있



이진묵 목사

1936년 도미 태평양신학교 입학, 1937년 한인남감리교회 전도사로 1940-41년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1943년 7월 전시정보국 근무 북미유학생회, 독립운동 관여...1946년 귀국해 조국발전 위해 일해

었다. 당시 예배당 주소는 웨스트 36 플레이스 1446번지(909?)였다. 하루 전 하오 6시에는 만찬회가 동아루 천앤샌페드로에서 모였는데 원하는 분은 윤으로사에게로 전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단체 주문에 인원수를 확인코자 했던 것 같다.

사회회는 만찬회 직후인 그 날 오후 8시 반에 예배당 인근 웨스트 36스트리트 1159번지의 윤으로사의 가정에서 있었다. 당시 만찬회와 사회회 위원들이 임메불, 윤으로사, 박차덕, 황성택 그리고 임성택이었는데 이들이 당시 교회 직원이었을 것이다.

당시 130명이 교적부에 올랐으나 45명이 출석하였다. 주일학교 학생은 45명이었으며 웹릿 청년회 회원은 21명이었다.

여자 선교회

1941년 2월 2일 주일 나성 한인 감리교회 여자선교회 신임원 정식 취임식이 있었다.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진묵은 신규 임원을 소개하였다. 이날 한국에서 10여 년간 선교하던 피도수 목사가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여 많은 감화를 끼쳤다. 찬양대와 이마리아의 독창은 더욱 깊은 영감을 더했다. 예배를 마친 후 이어서 임성택 장로 가정에서 교회 직원들이 여자 선교회 신임원 환영과 회원 위안으로 한국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더욱 돈독히 가졌다.

여자 선교회 신임원은 회장에 윤으로사, 부회장 이넌시, 서기 이마리아, 재무 곽애나, 사교부장 박차덕, 전도부장 김애드렛 그리고 통신부장에 전도라테였다. 그 달 7일 오후 8시 반에는 임성택의 가정에서 여자 선교회 신규임원 교제식 간전회를 가졌다.

고문 김해원의 사회 하에 이진묵이 기도했다. 먼저 신규임원 소개를 하였고, 전직 회장 이넌시와 신임회장 윤으로사와 및 이경선 목사의 감상담이 있었고, 피도수 목사의 축사로 폐회했다.

피도수 목사 환영회

그 달 7일 임성택의 가정에서 여자 선교회 신규임원 교제식 간전회에 이어 피도수 목사 내외분의 환영회를 가졌다. 신임회장 윤으로사의 사회로 개최하여 이경선 목사의 기도와 임메불의 환영사와 피도수 목사 부인 한흥복의 답사가 있는 후 만찬회 석상으로 옮겨 피 목사 내외가 오래 그리웠던 한국 음식을 나누었다. 이 모임에 이진묵도 참석했을 것이다.

피도수 선교사는 빅톨 W. 피터스 목사로 그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26세가 되던 1928년에 내한하여 39세가 되던 1941년에 강제 추방당하기 전까지 서울과 개성과 강원도에서 사역했고, 나성감리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얼마간 활동했다가 이후 나사렛 교회로 교단을 이적하고 가주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하였다.

장례

1941년 이진묵은 세 번의 장례

를 맞는다. 3월 19일 중가주 등지에서 재류하던 홍성집이 최근 신병 치료차 나성한인양로원에 거주하면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병이라는 진단에 비관하여 하오 5시경에 자기 방에서 식도로 배를 갈랐는데 구급병원을 거쳐 파이오니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운명하였다. 이에 이진묵은 호상했다.

두 달 후 나성에 재류하며 상업을 경영하던 경기도 남양 출신의 김순권이 나성병원과 파요니아 병원으로 옮겨가며 치료하던 중 5월 5일에 향년 56세로 별세하여 이진묵과 부목사 이경선과 협동으로 주례하여 에버그린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고노라와 4남 2녀가 있었다.

이진묵은 같은 5월 장수영의 장례식에 조문했다.

전시정보국

1941년 5월 29일 오후 7시에 스타트 중국인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회집한 미국 남감리교 년환회에 이진묵은 나성 한인감리교회 대표

은 이창희였다. 그 해 10월 북미대 한인 학생회 총회 임원 선거에 이진묵은 부회장에 피선되었고 회장은 장기원이었다.

이듬해 7월에는 북미학생회 상항지부 임원 개선에서 이진묵은 사교부 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상항 지회 연구부는 매월 1차식 연구 발표기로 하고 강연회의 일정을 마련했는데 이진묵은 1944년 12월 3일 오후 8시에 ‘교육제도와 문화발전책’을 강연키로 예정되었다.

독립운동

1932년 한국에서 이진묵은 흥사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에 힘썼다. 1937년 2월 28일 하오 오를랜드 한인예배당에서 대한인국민회 상항지방 위원장 양제현의 사회로 제18주년 독립선언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이진묵은 연설 순서를 맡아 ‘한국의 독립선언 당시의 형편과 근래 정형’을 전했다. 1940년에는 그가 내지 한재의연금으로 50센트를 기부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가 특별운동을 위하여 재미한인 동포에게 일인당 5원(불)이상 정수를 결의하였는데 12월 14일 하오 3시에 나성한인장로교 예배당에서 제1차 민중대회를 소집할 때 정수한 특별운동비 2,698원(불)중 현금이 748원(불)이었을 때 그는 5원(불)을 기부했다.

1943년 11월 대한인상항지방회 새 임원을 선출할 때 이진묵은 김재훈과 더불어 시국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의 임무는 상항에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에 더불어 의논하는 일이었다. 1944년 2월 27일 하오 7시 상항지방회 삼일절 기념식에서 국어연설 순서를 맡아 이진묵은 ‘삼일절을 당하라’를 연설했다. 이진묵은 1944년 4월 나성에서 회집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3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했다.

귀국

이진묵은 1946년 4월 말 국무성의 허락으로 귀국했다. 한국을 떠난 지 10년만이었다. 그는 ‘건국도상의 고국을 보고 미력이나마 힘을 쓰고자’ 1년간 체류했다. 그 후 그는 미국 아동구호연맹 농촌진흥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1956년에는 운수창고업인 파일상공운수부 대표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1967년 국제지역사회개발협회 한국지부장을 역임했다.

damien.sohn@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장류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8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임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8년 5월 18(금) ~ 21(월)
2) 고시 장소: Old Westbury, New York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시편 110:1-7
(2) 신약 주해 - 로마서 4:17-25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통 라이트의 뉴 퍼스펙티브를 평가하라.
(4) 설교 본문 - 누가복음 16:19-31
⑤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⑥ 고시 기간 중 설교설기교신을 지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⑦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⑧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⑨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⑩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⑪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JohnJhoOTExegesisPaper.pdf)
⑫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8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한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PCPN (재시형 \$1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8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2회 총회기간(5월22일-25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9일-21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조용철 목사 (Rev. John E. Jho) / Email :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주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 전화: (702) 296-919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ncy@gmail.com
2) 고시부 서기 : 조용철 목사 (702) 579-7576, drjho@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리더십 코멘터리 (5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여, 도약하고 상승하라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것에 적응하라

인간의 머리는 왜 창조되었을까? 모자를 쓰기 위해서일까? 인간은 뇌가 가진 능력의 1/10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 사람에겐 좋은 두뇌가 있는데 그중 10%만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묻어둔 채 기껏 모자를 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두뇌의 50%정도만 더 쓰도록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시도를 귀찮고 골치 아픈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할 일이 많은데 또 무슨 새로운 것을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작은 상자 속에 들어갈 살터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상자 속에 들어가 편안하게 있고 싶은 것이다. 그냥 안주하다가 결국엔 자기중심적 고집 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이를 초월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인생의 청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라

날마다 더 큰일을 기대하라. 앞서가는 리더가 되려면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장하여 더 많은 일을 이루는 리더가 되라. 우리에게 인생이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다. 깊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삶을 끌어올려라. “이만하면 됐어”라는 안일한 삶의 태도는 순식간에 자기 부정과 몰락에 빠지게 만든다. 안주하지 말고 인생의 청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며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이

끌어내라

최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실천하면 반드시 당신은 최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라. 당신은 인생의 같은 자리에 너무 오래 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지금 새로운 비전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져라. 그것은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 이상 사회와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라. 자, 이제는 일어

나서 전진할 때다. 나를 괴롭히던 문제의 뿌리를 뽑아서 내던지고 새로운 비전을 향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달려 나가는 리더가 되라.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라

당신의 내일과 미래는 더없이 밝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만드신 찬란한 태양이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생활 속에서 남들이 내게 하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인생의 최종 판단을 행하시는 창조주께서는 내 안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언제나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더없이 밝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늘로부터 받은 엄청난 잠재력을 모두 이루어낼 수 없다.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라

아파치족이 새로운 추장을 뽑게 되었다. 최종 선발된 세 후보가 높은 산 정상에 갔다 오는 경주를 벌이게 되었다. 하루가 지나서야 한 후보가 돌아왔다. 그는 높은 산에

서 뽑은 작은 풀을 증거물로 내놓았다. 뒤이어 다음 후보가 달려왔다. 그는 작은 돌을 하나 내보였다. 마지막 후보가 달려왔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가 말했다. “추장님, 우리는 내년 봄에 저 산 넘어 들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거기엔 좋은 평야와 강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할까?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가?

삶은 해석의 문제이다. 어떤 눈으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지금 이 시대에 인격이 중요한 이유는 책임을 맡은 리더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방향과 목표설정이 되기 때문이다. 리더의 인격에 근간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을 말한다면 그것은 신뢰와 겸손이다. 신뢰는 리더를 용기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또한 겸손은 리더로 하여금 나의 시각이 아니라 진실 된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한다. 당신은 지금 책임 맡은 리더로서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인격의 소유자인가?

신뢰와 겸손의 눈으로 삶 바라보는 인격 소유해야 자신감, 도전정신, 열정의 결과로 놀라운 일 이뤄

과거의 장벽을 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몇 백 년 전만해도 동물의 가죽을 말린 부대에 포도주를 저장했다. 가죽 부대는 오래될수록 딱딱하게 굳어지고 새것일수록 유연성과 탄력이 뛰어난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옛 것과 좁은 틀만을 고수하며 전전긍긍하는 우리 주변의 리더의 삶에 이 메시지는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가죽부대는 어떤 상태인가? 만약 당신의 가죽부대가 낡아 있다면 지금 그 가죽부대를 버려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장벽을 넘어 당신의 삶속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의 기적을 경험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기적을 통해 끝없이 높은 단계로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내 자신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낡은 고정관념이다. 또한 스스로 목표한대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자부심이다. 나는 이 글

을 읽는 당신이 새해에 인생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리더십을 나타내기를 소망한다.

수동적인 인생을 통해 현실 체념주의로 죽음만을 기다리는가? 당신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의 소망들은 표현되고 있는가? 이제 새해 소망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혀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늘이 내게 주는 비전의 증거들을 가슴에 품는 리더가 되자.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자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유난히도 그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는데, 심지어는 호텔에서 숙박계를 쓸 때에도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적곤 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때에도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는 말을 먼저 한 후 용건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사장 록펠러가 이 아치볼드라는 사원을 불렀다. 록펠러

는 이 평사원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스며 있는 애사심(愛社心)을 느낄 수 있었다. 록펠러는 그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는지 알고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록펠러는 아치볼드야말로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이 아치볼드는 후에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 사장이 되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만큼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낸 사람은 스스로도 놀랄 만한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며 일을 성취한다. 이것은 바로 자신감과 도전정신과 열정의 결과이다. 미국 시인 휘티어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라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후회가 없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삶에 찾아드는 모든 기회를 맞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일까?-솔로몬 묵상(3)

다윗은 평생에 고생의 떡을 많이 먹고 우리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여러 성품을 깊이 맛보고 주님과 더불어 산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산 애배자였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에 왕이 될 때 위기를 넘긴 것 외에는 피 터지는 전쟁도 치른 바가 없고 그 좋은 머리 굴러 정치술로 치국을 평천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자신위해 사치와 향락을 최대한 누렸던 모든 인생이 부러워하는 대박 인생이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은 다윗만큼 행복한 자였는가?

다윗은 인생의 쓴 맛 단맛, 아니 엄청난 쓴 맛 덕분에 단 맛을 주어진 것보다 크게 누리고,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자잘한 것에 연연치 않고 넓히고 주님과 함께 누리던 최고의 행복자이다.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기는 힘든 것 같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족도 부러울 것도 없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인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던 주님의 신부인 다윗의 행복의 그림자밖에는 밟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하나뿐 경외가 열쇠라는 정도를 아는 신앙 초보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땅에서의 복은 솔로몬을 능가할 이가 어디 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권력이 주어졌고 또 이를 누릴 줄 아는 능력 또한 극에 달하여 쾌락, 사치도 자신을 위해 제대로 원도 없이 누리고 갔으니 말이다. 게다가 표면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음을 선포하는 좋은 왕 같았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로 교육하기보다 그 자신의 삶이 실제 교육의 본보기가 된다.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화려한 성전에 비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미친 교육은 어떤 것이었을까?

말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고 기록한 많은 잠언들, 글들을 통해 가르쳤다. 하나 심지어 무기인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장식용으로 걸어놓기까지(역하9장) 자신에게 입한 부를 어찌지 못해 누리던 극도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보다는 세상에 속한 부와 권력의 힘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세상 사랑, 세상의 것을 전심으로 우상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섬기도록 확실한 길을 터놓고 오고 오는 후대의 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오도한 죄인들의 괴수인 장본인이라 볼 수 있겠다.

그 많은 부와 권력을 좀 더 백성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을 금하고 자제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심한 고생이 없어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이 가능했겠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도무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무고통의 인생에서 감사의 감각도가 형식에 불과하고 가족을 씌는 기본이라면? 고통이 즐겁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절정이라면 고난의 길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 불가결의 생명과인 가보다.

과연 십자가가 빠진 영화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추구가 인생이 추구해야하는 최상 목표가 아니고 온 인생들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함에 이르러 이 세상에 주님의 심장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영광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상의 목표임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그 분의 성품으로 연합하도록 초대하신다.

heenlee55@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8.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8(Fri)~21(Mon), 2018
- 2) Place: Old Westbury, NY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Psalm 110:1-7
 - (2) NT Exegesis Text : Rom. 4:17-25
 -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New Perspective of Tom Wright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 (4) Sermon Text : Luke 16:19-31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hnJho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Retake Exam fee: \$100)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8.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8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2n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5, 2018).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8-21, 2018 Old Westbury, New York) through Rev. John Jho.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John E. Jho / Address: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Cell : (7028) 296-9193, E-mail :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pcny@g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목회서신

아름다운 인생



여승훈 목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과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작은 호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종이배를 만들어서 흐르는 시냇물과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작은 호숫가에 띄워보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 작은 호수에 띄운 종이배는 띄워 놓은 자리에서 큰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에 띄운 종이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떠내려

가게 될 것이다. 종이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띄워 놓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런데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점점 떠내려간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띄워 놓은 종이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진보해 나가지 않고 제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떠밀려 내려가서 깊은

침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는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쁨과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면서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른다. 이런 영적인 흐름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지 않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불화의 배경이 되고, 모든 원망의 배경이 되고, 모든 미움의 배경이 되어서 모

든 관계(relationship)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관계(relationship)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라.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영적 제 자리 걸음에서 찾아오는 영적 침체가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권면했던 말씀이 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3:18-19).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지라는 것이다. 영적 진보에 대한 매우 단순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질 때 당신 안에는 영적 진보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진보를 위해서 당신이 사활을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매일 묵상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막연히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영적 진보를 가져 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억 하라. 영적 진보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여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남겨놓은 흔적은 방황과 행진이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는 그들은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는

행진을 이어갔다. 2018년도 한해를 방황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진을 이어갈 것인가는 영적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신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라. 침체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회복의 단계에 있는가?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영적 침체에 들어서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방황을 멈추고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사활을 걸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긴 성경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 내려가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풍성하여 영적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갈 때 바로 그 지점이 아름다운 인생(A Beautiful Life)이 되는 것이다.

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 Ph.D. 인준
ABHE로부터 2017년 12월 22일자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송 박사) 리더십(Ph.D.) 학위과정인 미 연방정부 인준기관인 ABHE로부터 2017년 12월 22일자로 인준 받았다.

동 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 인준받아 그동안 리더십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MBA에서 리더십, 국제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과정과 Doctor of Leadership 박사 학위과정에서 교육리더십,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전공을 운영해오던 중 이번에 Ph.D. 학위과정 인준을 받아 교육리더십(두뇌개발과 영재교육 리더십), 전문 경영인을 위한 경영리더십, 조직 및 사역 리더십 과정을 업그레이드 하게 됐다. 이에 대한 학점 취득은 영어 혹은 한국어로 가능하며 미국유학 혹은 온라인과 집중 세미나 형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리더십 박사과정에는 기업인, 교수, 장교, 공무원, 중, 고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특수교육 전문가, 의사, 기관장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번에 Ph.D. 학위과정 인가 취득을 계기로 보다 수준 높은 리더십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또한, 동문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십학회를 구성하여 국내 리더십 분야의 폭넓은 활동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미드웨스트대학교 전경

나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리더십 Ph.D.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없어, 글로벌 리더십 포럼(GLI 국제대표, 제임스송 총장)을 통해서 지난 38여 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 동 대학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동 대학교는 MBA 과정에 공공정책과 행정학,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투자 및 부동산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학위(M.A) 과정을 통해 전문 영재교육 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또 항공대학을 인준 받아 항공운항 학사학위와 미 항공국에서 발행하는 FAA 국제 조종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세계 항공사 취업에 도전하고 있다.

미드웨스트 국제항공대학은 세

계민간항공협회와 국제항공 안전보안협회 회원 항공대학으로 가입하게 되며 국제 항공안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각 나라의 항공에 관련한 보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Midwest University는 항공대학, 경영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ESL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 국무성으로부터 DS-2019, DS-3036, DS-3037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준 받아, 미드웨스트대학교 IRC 국제리서치연구소를 통해 공무원, 교수들이 J Visa로 연방정부 산하기관, 주정부, 의회, 시청, 카운티, 법원, 검찰청, 교육청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midwest.edu를 참고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제2의 인터넷 혁명, 경제혁명, 금융혁명, 화폐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에서 켄안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제2의 인터넷 혁명, 경제혁명...” 주제
제 2회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강사 켄안 선교사

제 2회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이 “제2의 인터넷 혁명, 경제혁명, 금융혁명, 화폐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제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옥스퍼드팔레스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켄안 선교사(GMIT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와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리서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첫 강의 “세상을 바꾸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서 켄안 선교사는 “블록체인은 해커들의 침입과 조직이 불가능한 신뢰시스템으로 돼있다. 모든 거래가 블록으로 형성돼있고 원장이 수 천개의 컴퓨터에 동일하게

저장돼있기에 해커들이 컴퓨터 한두 개 조작해서 정보망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미의 경우 토지장부가 뇌물로 인해 주인이 바뀌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형성하면 이러한 부조리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시스템에 해킹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킹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시스템과 허술한 환전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을 통한 송금, 입출금을 개인이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팔 때 에스크로가 필요 없어진다는. 즉 에이전트가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시대에는 국가간 거래를 할 때 각 나라의 화폐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그것을 토큰으로 대응되는데 그 코인이 피안마이(달러)로 바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문제점은 비트코인이 먼저 생겼기에 이더리움 등 타블록체인을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국제법상 저축여부, 세금법 그리고 개인해킹문제 등”이라 말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리서 기회인가 거품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에서 켄안 선교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거품이라는 이야기, 테러리스트의 자금으로 사용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화폐혁명으로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회장은 블록체인은 실제적인 것이라 말했으며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은 차세대의 골드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을 거래 대금으로 받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블록체인 대열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거래는 주식처럼 거래기업을 잘 살펴봐야 하며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부과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15차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의 인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 15차 어머니 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여목연, 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매월 여는 어머니기도회 15차 모임이 17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여목연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김태열 사모(고 한진관 목사 사모)를 강사로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00

김태열 사모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이 말씀을 붙들고 80년 인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며, 한달 전 별세한 남편을 믿음의 인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만나 목회의 동역자 뿐 아니라 긴 병상에 있었던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

로 아름답게 섬겨 “고운 것도 거칠고 아름다운 것도 험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마요셀 전도사의 찬양으로 시작해 기도 심화자 목사, 특별찬양 글로벌여성중앙단, 설교 김태열 사모, 합심기도 전희수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나명자 목사, 광고 최근선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는 2018년을 시작하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의 회개기도로 시작, 어머니기도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가정과 자녀, 사역 속에 그리고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하남이 세워주신 글로벌여목연 위에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16차 어머니기도회는 2월 21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글로벌여목회〉



‘복음뉴스’ 창간 1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교계에 선한 영향 끼치는 언론되겠다”
인터넷기독언론 ‘복음뉴스’ 창간 1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

인터넷 기독언론 복음뉴스(www.BogEunNews.Com)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창간 1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가졌다.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 이날 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교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으로,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씨야할 기사는 반드시 쓰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언론으로, 현실의 벽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독자들이 기자가 되어 함께 만

들어가는 ‘복음뉴스’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배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송호민, 육민호, 원도연 목사), 기도 이병준 목사, 성경봉독 여소용 장로, 특별찬양 MPC사모합창단, 설교 최창섭 목사, 봉헌송 이형민 집사, 봉헌기도 이종명 목사, 광고 장동신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복음의 나팔수”(사58:1, 6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나 찬송, 회년의 시작, 국가적

위기경고 등 여러 목적으로 울렸으며 주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소리를 듣게 된다”며 “이 시대 복음의 나팔수는 그리스도인, 목회자, 기독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그러므로 복음의 나팔수는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가 돼야 한다. 또한 죄와 비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히 지적하는 타협 없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며,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뉴스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흥인석 목사 사위로 김동욱 발행인의 인사말, 이종철 아멘넷 대표의 ‘복음뉴스를 말한다’, 김중국 목사의 ‘복음뉴스에 바란다’가 있는 후 유진웅 교수의 축하연주와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윤명호 뉴저지교협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폐식 및 오찬기도는 김영호 뉴욕장로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아멘넷 이종철 대표는 15년전 김동욱 집사 시절, 아멘넷 필자로 이름을 알린 과정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동역자로서의 감동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2018, 지구촌 최우선 외교정책 7가지를 주목하라!

(3면에서 계속)

7. 베네수엘라 위기
베네수엘라는 변영되고 역동적인 나라여야 맞다. 어찌 됐든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대신 그 나라의 끔찍한 경제·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파탄 내고 나라의 헌법을 완

전히 무시했다.

굶주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두로 다이어트’ 중이라며 쓴웃음 짓고, 의약품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마두로 지지자들은 투표를 통한 변화 노력을 방해했다.

2017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엔 더 나빠

질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2300%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올 12월 대선에 3개 야당의 참가를 금지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마두로의 독재정치에 항의했다.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희생

됐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인 수십만 명이 이웃나라로 망명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제재가 따를지도 모른다.

미국은 군사개입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중남미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샀으며 필리 마두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프로파간다 전 승리를 안겨줄 성싶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마두로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하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12회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28기 총동문회(회장 이종태 목사)가 주최하는 제 12회 “총동문회의 밤”이 1월 29일(월) 저녁 6시 30분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917)386-8852

한어회중 담임목사 청빙

뉴욕베데스다교회가 한어회중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기본 조건은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교단 Church of God(tennessee)에 가입 가능해야 한다. 기본 제출 서류는 1)본인 및 사모 이력서와 6개월내 가족사진 2)자기 소개서 3)목회관 4)최근 6개월 내 설교파일(2개 이상) 5)최종학력기준으로 졸업증명서 6)소속교단 발행 목사안수증명서 7)추천서 2부(목회자, 추천인 이메일 명기) 8)직무 수행을 위한 주치의 건강조견서 9)영주권이상 여권카피. 기타 서류(추후 제출)는 1)목회자 대우 수락서 2)공동의회 승인을 위한 약정서. 서류는 nybcoffice@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3월말.

▲문의: (646)400-1252, (917)742-7432

제3회 사모들의 행복축제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3회 사모들의 행복 축제가 2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2박3일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강사는 진재혁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담임), 정정숙 박사, 이정애 사모(내리연합감리교회).

▲문의: (201)242-4422

담임목사 청빙

시카고한인교회(PCAC교단)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이상, 한영 설교가능, 교단 가입(가능)자로 합법적 미국 노동 가능자. 서류는 본교회 양식지원서(kcclove.org에서 다운로드), 목회계획서(비전과 계획), 목사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증명서, 추천서(2명이상), 자기소개서, 한어설교(2편) 영어설교(1편) 동영상. 서류는 이메일(kcc.pulpit.app@gmail.com, PDF)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1월 31일.

▲문의: kcc.pulpit.app@gmail.com

기독교방송국 부국장 청빙

시카고기독교방송국이 부국장을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교 졸업후 목사안수를 받고 이종언어 구사가 가능하며 합법적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송선교에 사명을 가진 자로 이력서와 본인 가족사진, 방송선교 중요성 1부, 목사안수 및 최종 졸업(학위)증명서, 추천서(2명).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2월 28일까지. kcbstone@gmail.com

▲문의: (847)583-0191

뉴욕목사회 종교개혁지 탐방

제46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하는 종교개혁지 탐방이 5월 30일(수)부터 6월 7일(목)까지 8박9일간 열린다.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스코틀랜드지역을 중심(Edinburgh-Highland-Perth-Dunfermline-Stranraer)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1500달러(납만 가능)이며 목사회가 300달러를 보조한다. 참가신청 마감은 1월 31일까지 선착순 38명. 한편 목사회는 탐방관련 1차 공개세미나를 3월 5일에, 2차 공개세미나는 4월 26일(목)에 개최한다.

▲문의: (718)440-2289이준성 목사, (636)579-0067김주동 목사

교회활성화 세미나

CRM Korea(Church Resource Ministries of Korea)가 주최하는 교회활성화 세미나가 1월 29일(월)과 3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리스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각 교회 목사, 사모. 등록비는 100달러(교재, 점심 포함)이며 강사는 박동진 목사(CRM Korean 글로벌대표), 양춘길 목사(CRM Korea 미주대표, 필그림선교회). 이메일 bigbell59@gmail.com

▲문의: (312)286-4646 최종대 목사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2018년 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제 동부개혁장신 2018년 봄학기 개강부흥회, 강사 민경엽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2018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가 지난 22일 저녁부터 24일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주제로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렸다.

강사 민경엽 목사(LA 나침반교회 담임)는 첫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신8:1-16), 둘째 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눅 11:1-13), 셋째 날 “예수 신경”(막 12:28-34)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 민경엽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측불가능하고 정막하고 외롭고

힘들고 거친 곳 광야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를 낮추시고 둘째, 우리를 시험하셔서 셋째, 하나님을 깨달아 광야 끝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며 “은혜의 이슬비만으로 만족하며 무조건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벗어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원 총무처장 인도로 진행된 첫날 부흥회에서는 장학중서, 교훈패 등이 수여됐다.

장학금은 16명에게 총 1만 200불을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교회정보 앱 제작, 1월말 아이폰 사용

뉴저지교협 2018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지역교회들을 위한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건 31회기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이 지난 21일 저녁 6시 2018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가졌다.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린 1부 감사예배는 홍인석 목사(부회장, 하늘문교회) 인도로, 경배와 찬양 육민호 목사(행사분과), 기도 박상돈 목사(한무리교회), 성경봉독 최재형 목사(축복의교회), 특송 뉴저지장로성가단, 말씀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 특별기도, 봉헌기도 송호인 목사(한성교회), 봉헌송 뉴저지사모합창단, 축도 신의철 목사(증경회장)의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로 2018년 시작

미네와스가 공원 산행으로 친교와 건강 다져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폭설과 한파로 연기됐던 2018 신년기도회 및 회원 간의 친교와 건강을 위한 산행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오전 7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50인승 버스로 출발한 참석자들은 체스터에 소재한 뉴욕온누리성결교회(담임 김주동 목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김명옥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박도보라 목사, 성경봉독 박시훈 목사, 설교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회장), 신년인사 회장 문석호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자문위원장)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는 에스겔서 36장 24-31절을 본문으로 “새해,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기도회는 총무 이준성 목사 인도로, 통성기도, 광고 김주동 목



뉴저지교협 2018 신년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기도는 이정환 목사(뉴저지

순복음교회)가 미국과 조국을 위해, 오병준 목사(뉴저지장로교회)가 뉴저지 교회들과 교협을 위해, 장동신 목사(오늘의복음교회)가 뉴저지 한인동포들을 위해 각각 인도했다.

2부 하례식은 총무 박인갑 목사

사, 마침기도 박태규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성기도는 △목사회의 행사계획과 임신행위원들을 위해(김희복 목사) △목회자들의 영성과 복음적인 삶을 위하여(이창종 목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영성회복을 위해(임지운 목사) △뉴욕교계와 동포사회 그리고 미국을 위해(김연규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김재호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미들타운 식당에서 만찬을 한 후 미네와스가 뉴욕주립공원에서 산행이 진행됐다.

“소명예의 충실함을 돕는 목사회”와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되는 목사회”라는 표어로 출발한 제 46회기 뉴욕목사회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2018년 사역을 시작한 다.

(정리: 유원정 기자)



비블리컬신학교 미주동문 신년 코이노니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초대 이사장 김인기 목사 추대

BTS 미주동문 신년 코이노니아

비블리컬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BTS) 미주동문 신년 코이노니아가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 열렸다.

1부 예배는 회장 임동열 목사 인도로 이용정 목사의 찬양인도 후, 홍인석 목사가 기도했으며 말씀은 김인기 목사가 전했다.

김인기 목사(올랜도 비전교회 담임)는 “교회그림 다시 그리기”(행 2:41-4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인들의 말씀과 삶의 괴리에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며 “교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과 영성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목사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본문에서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두려움이 생겼다. 둘째 서로 사귀는 일이 일어났다는. 셋째 성찬식 즉 주님을 기념하는 일은 성도들의 대화와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 넷째 기도에 힘쓰기는 영적 다이내믹을 위해(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공동소유’는 성도들의 관계 속

에 섬김으로, 이웃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체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BTS에서 배운 영적 다이내믹과 교수들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 배운 대로,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목사들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현금 후 문영운 목사 광고, 재학생회 소개, 이승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이사장으로 김인기 목사를 추대했으며 김 이사장은 “동문들의 목회가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동문들의 목회를 돕는 일이 라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BTS 미동부 동문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임동열 목사(뉴저지 엘링장로교회) △부회장 김대업 목사(보스턴 새빛교회) △서기 문영운 목사(프린스턴신학교 Th.M 졸업) △총무 권택택 목사(기독교대학원 뉴욕지구).

재학생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홍복기 목사 △부회장 권혁원 전도사 △총무 이왕규 목사 △회계 박은영 전도사 △서기 신철균 강도사 △섬외분과장 정대진 목사. (유원정 기자)

사회로, 개회기도 박근재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미국과 한국 국가 제창 바리톤 박요한, 신년사 윤명호 목사, 부임인사 박효성 뉴욕총영사, 축사 박은림 회장(뉴욕한인회)와 존 호간(버겐카운티장), 첼로 최주 김유식 집사, 뉴저지목사회 장학금 수여 박근재 목사와 한동원 목사, 폐회기도 이병준 목사(증경회장), 만찬기도 송재현 목사(뉴저지주사랑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뉴저지교협은 주소록을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뉴저지 교회정보 등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앱(njkoreanchurches)을 만들었으며, 아이폰 용은 월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행사안내로 △이단대책 세미나: 2월 7-8일/소망교회/강사 한선희 목사 △호산나대회: 6월 23-24일/한소망교회 △오페라 ‘손양원’: 7월 13-14일/버겐 테크 강당에서 각각 열린다고 광고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2018년 1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원로의 지혜와 기도...팀웍 이루길”

뉴욕원로목사회 2018년 1월 월례예배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정익수 목사)가 2018년을 맞아 1월 첫 월례회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김성국 목사는 “내일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출17:8-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노마지(老馬之智)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며 나이는 원로들의 협력을 독려했다.

김 목사는 “주 안에서 수많은 세월을 묵화하며 달려왔던 그 지혜가 소중하다”며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며 ‘내일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한 모세의 꿈을 이루는 팀웍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목회현장이나 이민사회 현장, 한국의 상황 모두가 어렵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보는 눈이 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륜과 뜨거운 사랑으로 듣는 귀가 필요하다. 원로목사님들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사위 아말렉을 물리침으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뉴욕을 책임

지는 팀웍을 이뤄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정익수 목사 인도로 기도한문수 목사, 특송 소유영 전도사, 설교 김성국 목사, 헌금기도 김용걸 신부, 헌금특송 증경회장단, 축도 김용옥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축도 앞서 △조국의 안정과 평화 △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 △퀸즈장로교회의 비전 활성화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회의에서는 임원 명단과 출사모 자격, 잔액 반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익수 목사 △부회장 김용옥 목사(유임) △서기&총무 소의섭 목사 △회계 이수산 목사 △협동총무 한문수 목사.

뉴욕원로목사회 2월 월례예배는 14일(수) 오전 11시 뉴저지 주 예수 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나에서 강사 정부흥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개인적 삶과 배경, 자유의지, 정의 강의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나, 강사 정부흥 박사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나가 정부흥 박사를 강사로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정관호 목사의 기도와 강사소개가 있을 후 정부흥 박사가 오전 2강, 오후 2강의를 인도했다. 강사 정부흥 박사는 고신대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아공 자유대학교에서 Ph. D를 받았으며 현재 예일대 Ph.D 에드워즈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 박사는 “금싸라기 같은 에드워즈의 삶의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이 철저히 나타나고 열매를 많이 맺었음을 볼 수 있다”며 “에드워즈의 정의론을 1년간 다시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말하고 “요즘 한국 교계에서

많이 대두되는 정의론에 대한 해답을 에드워즈는 이미 그 시대에 하고 있다”며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1996년, 정부흥)와 에드워즈의 생애를 설명하는 구절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를 소개했다.

이날 정 박사는 △1강: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교육 자녀 작품 △2강: 에드워즈 철학 과학 신학 배경 및 영향 △3강: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론 개괄 △4강: 에드워즈의 이신 정의론 개괄이라는 제목으로 총 4개의 강의를 인도했다.

▲연락처: PeterBHjung@gmail.com

(유원정 기자)

88명에 136,800달러, 대통령상도 88명

2018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대통령상 시상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는 2018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대통령상 시상식을 15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갖고 총 88명에게 136,800달러를 지급했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이사(사회)로 열린 시상식은 장애인 장학생(14명), 꿈나무장학생(38명), 근로복지생(4명), 사역자육성장학금(10명), 한국장학생(10명), 제3국 및 북한장학생(1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기금(2명) 등 총 88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또한 이날 함께 열린 대통령상 시상식은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운영하는 사랑의교실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2018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대통령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남가주지역(OC, LA, 토렌스, East LA, 엘바인)에서 실시되고 있는 5세 이상의 발달장애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무료 토요일 학교

에 발런티어로 수고하고 있는 학생들과 남가주밀알선교단의 밀알위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 2018 Impact-Makers to Watch 상을 수상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

2018 Impact-Makers to Watch 수상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이 City Impact Lab에서 주관하는 Impact-Makers to Watch 상을 수상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금까지 LA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얼마나 달려왔는지 되돌아보게 됐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며, “제 소망은 한미연합회가 계속해서 LA 커뮤니티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가 더해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2018년에도 여러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를 부딪쳐 풀어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은

심뜬 학생들에게 수여됐으며 총 88명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한 차주희 학생 등 16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이종희 단장은 “장학금 수여식은 밀알이 버팀목과 격려와 힘이 돼 밀알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이 혼자가 아니며 밀알을 후원하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시식식 전에 열린 예배는 밀알선교단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행사위원장 전영국 장로가 기도했으며 미주밀알 이사장 김영길 목사가 ‘너희가 서로 집을 지라’(갈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시상식은 김영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말씀축제에서 박성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 따라가는 삶 살자”

LA복음연합감리교회 말씀축제, 강사 박성민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는 말씀축제를 14일과 21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

21일에 열린 집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은송 목사의 사회로 시작, 정요성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설교는 박성민 목사(아주사 퍼시픽대학교 부총장)가 ‘다시 얻은 기회’(마9:9)라는 제목으로 했다.

박 목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좋은교회, 좋은목사, 좋은가정, 좋은생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말을 하며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만나는 첫마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마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같은 구절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마가복음에는 알레오의 아들로,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소개가 된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써 있다. 누

가와 마가는 마태를 배려해서 마태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태국 노라 불려지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마태는 그가 쓴 마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이는 그가 가진 솔직함이 드러나는 것”이라 말하며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러지 못하지만 최선 다해 솔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야 한다. 내 자신에게 솔직한 자는 하나님께 솔직하고 이웃에게 솔직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은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 따라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예수 따라가는 삶은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14일 예배는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총리렉터)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LA 모던아트 이색전, 작가 38명 참여

갤러리 웨스턴(관장 이정희)이 신년 첫 전시로 ‘LA 모던아트 이색전’을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기획자 서은진 작가가 해마다 LA에서 갖는 ‘프로 작가와 글로벌 Z세대’들이 함께 하는 영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열렸다. 전국 공모를 통해 발굴한 작가들이 한국의 모던아트를 알리는 이번 전시는 38명의 작가들이 한국화, 민화, 서각, 사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참여 작가는 강희완, 조백리, 최우식, 진희, 강경록, 노창환, 이승무, 김덕진, 조영심, 김영희, 우영충, 윤재원, 김영심, 윤상웅, 이은지, 최옥영, 이서용, 서정희, 유상영, 한래훈, 이예원, 이연수, 최세영, 임건민, 박해람, 이재아, 수잔황, 장정자, 최윤정, 이종남, 김용우, 정을돌, 홍정희, 김연하, 이재성, 신제영, 원다정, 송도영씨.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장로협의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이 2월 4일(주) 오후 4시 참빛장로교회(7378 Orangethorpe Ave, Buena Park)에서 열린다.

▲문의: (714)383-5303회장 한창훈 장로, (714)349-4002총무 강진욱 장로

목회자와 사모가 함께하는 세미나

‘목회자와 사모가 함께하는 세미나’가 오렌지카운티 동양선교회(담임 김대성 목사)에서 29일(월) 오후 7시, 30일(화) 오전 9시30분 양일간 열리며, 이상목 목사(이여리한인교회)가 주강사로 선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침과 영성 사모 수련회’ 후, 사모들이 목회자 세미나 개최 권유로 열게 됐다. 세미나는 무료.

▲ 문의: 왕명애 사모 (714)868-2885

한인연합감리교회 제직(직분자) 세미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제직(직분자) 세미나가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 한인교회연합회 평신도부 주최로 28일(주) 오후 3시 40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965-9191

사역자 청빙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다음과 같이 사역자들을 청빙한다. 자격은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신영대대학부 풀타임 교역자: 정규신학대학원 과정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대학생 사역에 애정과 열정이 있는 자 △C-Zone 파트타임 전도사: 정규신학대학원 과정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초등학교 어린이(1-6학년) 사역에 애정과 열정이 있는 자 △유아부 파트타임 전도사: 정규신학대학원 과정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유아부 어린이(3-4.5세) 사역에 애정과 열정이 있는 자 △한국학교 파트타임 교장: 한국학교 운영 및 2세 뿌리교육에 소명이 있는 자 △미디어 스펀세리스트(파트타임): 미디어설 운영, 영상 제작 및 교회 행사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소유한 자 △차량부 풀타임 매니저: 교회차량/기사관리 경험자(B종 라이선스 소지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신앙간증서 각 1매, 추천서 2매를 1월 31일(수)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323)227-1400

주님세운교회 QT세미나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가 주최하는 QT세미나가 오는 26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강사는 김은애 사모.

▲문의: (310)325-4020

충현선교교회 찬양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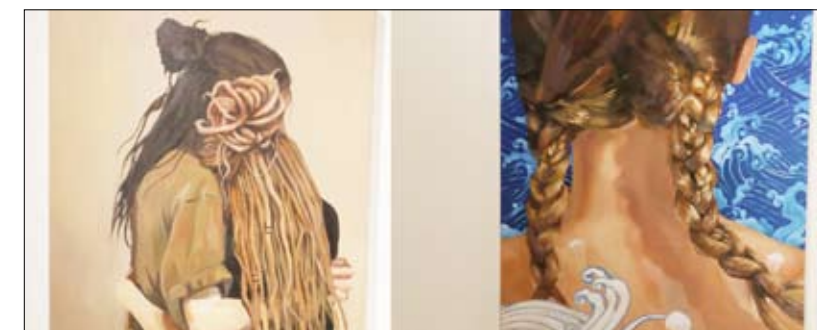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본 교회 SOL 찬양팀 인도로 찬양집회를 27일(주) 오후 6시30분에 개최한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교회여 노래하라!’

▲문의: (818)549-9191

달라스연합감리교회 2018년 신년부흥성회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2018년 신년부흥성회를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2월 2일(금)부터 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새벽 5시, 저녁 8시, 주일 1부, 3부 예배.

▲문의: (972)258-0091



LA모던아트 이색전에 전시된 작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대형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대형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igcusa@yahoo.com / www.lai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창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6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c.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s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영양대형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 2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텍스트 가능),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창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영양대형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강좌(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r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대형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c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강좌(목요일)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i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영) 수 요 예 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창년) 창년부예배: 오전 10:00 오전 11: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젊은층의 ‘십일조 반란’ …교회가 흔들린다

2030 절반 “출석교회 이외 다른 교회나 단체에 낼 수 있다”

대학원생 김모(25)씨는 3년 전부터 십일조 일부를 오래 알고 지낸 청년사역자에게 보내고 있다. 출석교회 재정은 넉넉하니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사역자에게 십일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십일조를 나눠 내도 되는지 궁금해 담임목사에게 질문하자 출석교회에 온전히 내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출석교회에만 내라는 성경 구절도 없는데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내기 직장인 이모(27·여)씨는 7년 전부터 구호단체에 십일조를 낸다. 교회에서 십일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회계보고 시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십일조를 더 많이 쓰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는 부담스러웠다. 이씨는 “아무 생각 없이 납부 내니까 나도 내고 있는 것 같아 능동적으로 십일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30세대 기독교인 사이에서 십일조를 출석교회에 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무너지고 있다. 십일조는 교회 유지와 구제 사역 등에 주로 쓰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재정요소다. 교회 미래를 지탱할 다음 세대의 십일조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크게 바뀌고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큰 교회의 재정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 교회들도 회계 공개,

구제사역 강화 등 젊은 세대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보인다.

한국기독교복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이성구 목사)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신자 두 명 중 한 명은 ‘출석교회 이외 교회나 단체에 십일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같은 응답 비율이 2012년 23.3%에서 2017년 46.5%, 30대는 23.3%에서 49.2%로 각각 두 배가량 증가했다. 실제로 ‘십일조를 다른 교회에 내거나 두 곳 다 낸다’는 응답은 20대 24.8%, 30대 26.5%로 10·13%에 머무른 40대 이상보다 배 이상 높다.

2030세대에서 이 같은 응답이 특히 높은 이유는 교회에서 십일조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스스로 원하는 곳에 쓰기로 결정했거나 십일조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 조모(33)씨 부부는 십일조 절반을 구호단체에 후원한다. 그는 “교회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십일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 예모(34)씨는 “소득 십

분의 일을 기계적으로 내기보다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놓는 게 십일조 본연의 목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십일조 대신 감사헌금과 사역헌금으로 소득 십분의 일을 낸다.

십일조에 대해 연구한 목회자들은 십일조의 신학적 근거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

조현삼(광영교회) 목사는 “십일조는 재산의 십분의 일만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고백이라는 점을 잘 전해야 한다”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놓은 사건(행4:32-37)은 십일조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십일조가 알고 싶다’(넥서스 CROSS)를 쓴 윤상원(부안읍교회) 목사는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따라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한 훌륭한 전통”이라며 “성도들과 십일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 젊은 세대들도 다시 출석교회에 십일조를 내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태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기감 총회 실행위원회 이전에 감독회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가져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면 현 감독 중 상위 연급자나 연장자가 30일 이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직 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전 감독회장이 함소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

한 감리교 목사는 19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선거무효 판결을 감리교 선거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야 한다”며 “당선 되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감독회장 중심 체제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감리교 본연의 의회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감 내부 관계자는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진 못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페이지 댓글에 신천지라는 것을 가급적 드러내지 말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S는 신천지를 뜻하는 은어다.

이들이 올린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은 소위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강제개종 목사는 이단상담 등을 통해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이단상담소협회) 소속 목사들을 가리키는 신천지 신도들의 용어다.

하지만 이단상담소협회의 상담 절차상 강제 개종은 불가능하다. 이단상담소협회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강제 개종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개종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협회에서는 이단상담을 하게 될 경우 본인과 부모 동의를 담고 있고, 상담이 끝나면 폭행 폭언 등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자필 서명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번 김씨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김씨 측이 지난 19일 선관위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때문이다. 김씨 측은 내용증명서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소속 교단의 임원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 목사는 소속 교단의 임원회를 통한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선관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초신자도, 대표기도자도 어려운 기도...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통로이 기도 하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중요하다. 새해를 맞아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신앙인이 많다. 하지만 막상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기도를 방해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서둘러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배학자나 현장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기도는 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초신자는 성경과 짝을 이뤄 기도를	하는 것도 ‘건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초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기도가 낯설고 배운 적이 없어서다. 또 기도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적 열심만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 잘못된 기도 습관의 대표적 인 예다.	내 기도도 길게, 타인 기도도 짧게?
김명실 영남신대 예배학 교수는 ‘성경’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앙의 짝이라고 말한다. 그는 “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긴 본문을 정해 꾸준히 읽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곁집어 암송하면 기도문의 구성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초신자들이 교회의 기도 소모임에 적극 참여	홍용희 부산 성민교회 목사도 시편을 읽는 것이 기도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편을 쓴 저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고백을 글로 썼다”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기도문”이라고 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 목사는 “하루 세 차례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도의 일상화’라고 말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조언이다.

교계 미디어 중독예방활동, 타종교로 확산

‘스마트침묵화운동본부’ 기독교 뒤편어 올해 안에 설치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스마트쉽 태그’ 등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미디어 중독 예방 활동이 천주교 불교에도 점목해 ‘스마트쉽 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스마트침묵화운동본부(공동회장 양병희 목사, 김민수 신부, 가섭 승려)는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과(過)의존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종단이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스마트쉽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속교육, 정부와의 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동회장 양병희(영안장로교회) 목사는 “최근엔 2세 미만의 영유아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를 책임져야 할 다음세대의 주역들이 영아

기 때부터 중독에 빠진다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의 징후”라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는 고난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운동을 펼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일상 속 의미 있는 시간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출범한 기독교스마트침묵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스마트침묵화운동본부는 출범 이후 ‘일하삼견(一下三見·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가족과 친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을 표어로 미디어 사용 절제운동을 전개해왔다. 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벨소리에서 진동으로 모드를 변경하는 ‘스마트쉽 태그’

“삶 엉망이면 교회 망친다” 청년사역자 10계명

이상갑 목사, 다음세대 선교부진원인 사역자 일탈서 찾아

청년사역연구소장 이상갑(산본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 15일 경북 문경시 글로벌선진학교에서 열린 다음세대코칭센터 세미나에서 제시한 ‘청년사역자 10계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청년사역자들의 비위와 일탈이 이어지면서 1020세대 대상 선교의 부진이 현실화된 지금, 사역자에 대한 엄격한 바로미터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목사는 먼저 청년사역자 스스로 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사역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실제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교회와 청년을 망치게 돼 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현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적 막노동’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청년들이 되곤 또는 하교한 후에 양육훈련을 하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에 공감하며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영적 막노동을 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할 수 있기에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가정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역자들이 이성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년대상 사역자의 실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문대식씨가 대표적 예다. 2016년 역시 미성년자

기도는 나와 먼 곳에서 출발해 가까운 곳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윤호 서울 반포교회 목사는 “보통 본인의 기도를 가장 길게 하기 마련인데 이러면 타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열방과 선교사로부터 시작해 국가와 교회, 가정과 개인의 기도 순으로 하면 골고루 기도할 수 있다”는 팁을 줬다. ‘기도의 편식’을 지양하라는 제안이다.

대표기도는 평소의 기도생활이 핵심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펔전 목사는 “공중기도의 출발점은 개인기도”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중기도엔 평소의 기도생활이 녹아 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의 저자인 밥 소르기(미국 국제기도의 집) 목사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신앙의 여정으로 이 훈련은 영적 모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매일의 기도생활을 통해 회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고 권유했다.

제작·보급 활동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선 스마트침묵화운동의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천주교와 불교에서 올해 안에 종단별 스마트침묵화운동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석가탄생일·템플스테이 미디어 금식’ ‘성당·사찰 내 스마트쉽 태그 부착’ ‘학부도 디지털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기독교스마트침묵화운동 본부장 이동현 목사는 “기독교계 미디어 금식운동을 통해 ‘자아 절제력 회복’ ‘신앙 회복’ ‘가정 내 공동활동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각 종단별 상황에 맞춰 적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공익광고 캠페인,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협력키로 한 만큼 종교계가 앞장 서 건강한 사회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면직된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씨도 그렇다. 이들이 이끌었던 단체의 구성원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청년을 실험대상(마루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보편적으로 2~3년마다 교회의 청년사역자들이 바뀐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역자들이 양육, 전도 등의 시스템을 입맛에 맞게 바꿔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 목사는 “사역자들은 청년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청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역 10계명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이 목사는 17일 “청년사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며 “다음세대가 사라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김노아씨 단독 출마

임 후보 서류에 중대하자 엄기호 대표회장 후보서 제외

당초 2명이 출마기로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 서울 세광중앙교회 당회장 김노아(79)씨가 단독 출마한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71) 목사는 임후보 서류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됐다. 앞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전광훈

(62)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 가져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기호 2번 엄 목사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서류 미비점이 많아 모두 반려키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는 기호

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따라서 엄 목사의 후보 배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엄 목사는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이달 말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기총 업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김씨가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른다.

전 원장이 이날 제출한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전 원장은 “나와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목회자가 현재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데 회원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후보에서 제외한 건 불법”이라며 “후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거에서 배제하면 선거절차상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나중에 무효가 되느니 가져본 신청을 통해 선거를 바로잡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교토소 선교칼럼 (36)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작별하는 편지

36살에 살린이라는 재소자가 자신이 꿈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제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살린은 2년 반 전에 그녀의 하나뿐이었던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그의 친구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꿈에 나타나 살린에게 자신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는 한 친구를 자신에 집에 숨겨주며 한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약을 훔친다는 것을 알게 된 살린의 동생은 그에게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묶던 방으로 가서 총을 가지고 나와 살린의 남동생을 3번 쏘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잡혀간 남동생의 친구는 살린의 동생이 그를 먼저 공격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총을 쏘았다고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살에 관한 형은 전혀 받지 않고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만 5년을 받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린은 그녀의 남동생을 죽인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의 두 자녀가 매일을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동생을 죽인 그 남자는 몇년 후면 나와서 자기의 자녀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을 죽인 남자가 출감할 때 그를 어떻게 죽일까 다른 사람들과 은밀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린은 죽은 동생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음성은 남동생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마귀는 그녀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원한 맺힌 삶을 살므로 그 틈을 이용해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녀에게 용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며 마귀에게 고통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실제로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남동생에게 작별하는 편지를 쓰고 동생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것과 함께 남동생을 죽인 남자를 용서한다는 편지를 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살린이 이제는 동생을 예수님께 맡기므로 마음으로부터 그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을 살해한 그 남자를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녀 자신을 고통의 방에 넣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용서한다는 편지를 쓰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통의 방에서 나오도록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1)하나님께서 그녀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분노를 가져가 주시도록 기도 하고 (2)남동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회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3)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고 (4)하나님께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상심한 마음의 문과 용서 못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주시라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동생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진정한 작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녀에게 부여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동생에게 빨리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살린은 지체하지 않고 동생과 작별하는 편지와 함께 동생을 죽인 사람도 용서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동생을 그토록 붙잡던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없어서 보복을 하려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분노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

에 평안과 기쁨이 차게 되었습니 다. 너무나 기뻐서 그녀는 자신이 쓴 편지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그녀의 편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살린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를 슬프게 하는 남동생의 음성도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 기도 모임에서 자신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는 남동생을 죽인 남자에게 보복을 하려는 계획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요리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요리사 학교에 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노인들을 도울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상심한 마음에서 치유를 받은 살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동생 생각에 아파하며 마약을 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새로운 삶의 각오를 하고 교도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기쁨으로 가득차서 환하게 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살린에게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놀랍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린과 같이 비극적인 참사를 당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께,
다사다난했던 올해 2017년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 때문에 올 한해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마을 사역의 올해의 10대 뉴스를 꼽아보자면;

1. 11월 20일 소필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2008년 12학년 센터 시작 때부터 함께 해서 7년 신학공부, 전도사 생활까지 마치고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방황하느라 굴곡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워내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귀한 일임을 소필 목사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지금 개미산 마을에서 목회하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4월 3일 임마누엘 국제학교 건축 기공식, 그리고 11월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어먹던 눈에 흙을 매꾸어 1미터 높이로 높이고 파일을 박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쌓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지만, 이제 드디어 공사 시작입니다. 여러 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학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올해 4월달에 개미산 마을 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학생들과 함께 개미산 마을 어린이들에게 매일 낮에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사역이 신학생이었던 소필 목사와 워터 학생이 담당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100여명의 학생들과 학생선생들이 반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고 교회 등록도 되어 이 나라 사람에 의해 센터-교회 모델이 시작되었습니다.

4. 센터에서 학생들의 훈련과정으로 택했던 동물 키우던 것을 접었습니다. 닭 몇 마리만 남겨두고 소, 오리 등을 팔거나 이웃들에게 팔아서 키우게 했습니다. 센터 학생들이 오전 6시부터 학교수업이 시작되고 오후 5시에 학교에서 끝나 돌아오니 그동안 해왔던 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배우고 공부할 하는 방법이 학교 수업시간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면서 국제학교를 통해 학교와 삶이 연결되어 기독교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5. 5월에서 6월 사이 한달간 국제학교 설립에 관해 보고를 드리고자 미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뉴라이프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 뜨거운 관심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올해 국제학교 사역과 연관되어서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를 다녀가셨습니다. Dr. Winston Wong과 이일송 집사님께서 많은 손님들과 함께 방문해주시고 학교 건축을 후원해 주시기 위해 동봉해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선 정형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함께 국제학교 사역에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협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 선교사가 11월말에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7.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선 건물도 있어야 하지만 훌륭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 센터에 영어 배우러 오는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고 장래가 보이는 학생들에게 지난해부터 학교설립에 관하여 비전을 나누었고 그중에 몇 학생이 선생이 되어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올해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주어 선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회계, 유치원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잘 배운 후 마을로 돌아와 후학양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11월 2일에 저의 외할머니인 고 이정지 권사님께서 향년 95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매일 이모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엔 그날 아침 할머니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시던 평소의 소원으로 평안히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신 할머니이십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위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올해는 성탄절 잔치를 개미산 마을에서 열었습니다. 돼지 두 마리를 잡아 음식을 준비하고 밥은 마을을 돌리면서 한 솥씩 해오셔서 풍성하게 잔치를 치렀습니다. 소필 목사가 준비한 이 성탄절 행사엔, 아가예수대신 곰 인형이 등장한 예수님 탄생 연극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마을 사람들도 깨닫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0.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마을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름은 ‘캄뜨게’, 지금 센터에서 차로 10분, 4km정도 떨어져있고 국제학교 현장부터는 2km 떨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태국으로 일하러 떠난 빈 집을 빌려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칩니다. 작년 8월부터 세 곳의 마을들을 찾아다녔으나, 이상, 먼장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다시 찾은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4살부터 11살까지(5학년 학생들) 30명을 두 반으로 나누어 하루에 두 번씩 가서 워터(Vuthy) 학생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을은 Vuthy 학생이 맡아서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이곳마을에 세워지는 센터가 마을 사람들의 접촉점이 되고 교회가 되어 복음이 마을 깊숙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sther.m.cho@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Tel. (516)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3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k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I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Tel.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http://www.torontogarden.org/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Tel. (595)211-574-985 E-mail: haninik@hotmail.net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독자 투고

이임곤 은퇴목사

성공의 길

저는 2011년 12월 31일부로 Palm Springs 한인교회에서 은퇴한 이임곤 목사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자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재능에 맞는 일이면 기쁨으로 하기에 지루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이 뒤따릅니다.

저에게는 모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제 40대로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직업을 가졌고 상당한 물질의 부유함도 이루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만 일을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해져서 교회당 건축문제, 선교비 등이 염려 되겠습니까?

저는 1984년 12월 16일 주일 성찬식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데 이튿날 월요일 직장에서 성경을 펴더니 이때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이 100% 믿어지며 찬송가의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의 구구절절이 귀에 쏏이며 성령의 불세례가 어제 주일보다 더 강하게 임하였는데, 그때 “네 자녀들은 내가 준 재능대로 일을 시켜라”는 계시가 뇌리에 켜혔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머리에 꼭 박혀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기다렸고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의 실수도 인정해 주면서 즐겁게 자라도록 격려해 주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제는 칭찬임을 확신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제일 흔한 실수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의 재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어 이성을 만나면 가만히 그냥 두세요. 사춘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훈=남자나 여자나 잠은 반드시 집에서 자야한다. 대학은 집에서 다녀야 하고 기숙사 생활은 안된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자녀 모두 대학을 선택할 때 “네가 좋아하는 대학과 전공과목을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업만은 부모형제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권하지 마시고,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네 자녀는 전공(직업)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가졌는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진철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재능이기에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게을리 하였다고 해도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의 모양새도 각기 다르고 재능도 각기 다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복분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는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필요하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진실로 참된 성공입니다.

imkonlee@gmail.com



선교 펄치

필리핀

1. 2017년을 보내며

2017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지나간 한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생애에 2017년의 연말은 단 한 번 뿐인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2017년은 국내와 해외에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수선한 한 해였지만 곧 있어 다가오는 2018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선교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지난 7개월 동안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저희 잠보앙가 도시는 생각보다 안전하였습니다. 올해 잠보앙가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려 곳곳마다 물난리가 심하여 피해가 많았지만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집 부근과 사역지 근처는 어려움이 피해갔습니다.

필리핀은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준비로 무슬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이 분주합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위문품을 보내주면 평소 때보다 두 배의 시간이 지연됩니다.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저희 잠보앙가 지역에 한국인 여행 금지 소식이 있다 보니 사람들의 방문을 좀처럼 기대할 수 없고 선교지로 보내져 오는 위문품을 통해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2. 12월의 학교 행사

뜨거운 태양 아래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이 마냥 즐거워합니다. 12월에는 행사가 4개나 있습니다. 새희망 학교 크리스마스 행사와 연극, 주일 학교4 행사, 청소년들친구 초청의 날'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어느새 연말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접촉점이 됩니다. 학교를 통해 기독교 교육과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선교지에 계속 남아 사역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기독교 학교와 대학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미 굳어진 성인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복음에 대하여 비교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많으며 또한 높은 문맹률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와 함께 미션 스쿨을 설립하여 많은 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에 저항

적인 무슬림들도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슬람 지역에서의 미션스쿨은 성공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3. 학교 사무실 공사 완료

지난 8월 초부터 학교 선생들 기숙사 옆에 사무실을 공사해왔습니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두 달이면 마칠 수 있는 공사인데 재정이 채워질 때마다 자재를 구입하였고, 비가 자주 내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4개월이 걸

무실 책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저도 마냥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뿐입니다.

4. 많은 비가 내림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려 잠보앙가 도시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들과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15가정을 선정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에 학부모들이 고마워하였습니다. 비가 많



렸습니다. 림빠 마을에 새희망 학교 안에 첫 번째 건물(교실 5개)과 두 번째 건물(교실 4개), 선생들 기숙사 2층 건물 그리고 사무실 등 모두 4개의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제가 일일이 일꾼들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다보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1시간30분 거리에 있고 오후에는 너무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러 위험할 수도 있기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 완성되어 아주 많이 기쁩니다. 학교에 수업료를 내려 오는 학부모들이 사무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아주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저희 사역지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선교지에 온지 22년이 지났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

이 내리고 파도가 높으면 투부란 마을을 학생들이 길이 막혀 여러 날 학교에 오지 못하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가난한 어부들이라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면 하루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바닷가의 학생들 가운데는 높은 파도로 인하여 약한 집 여러 채가 부서졌습니다. 시오콘 마을에는 큰 다리가 많은 비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태풍'덴빈'으로 최소240여 명이 사망하였고, 수백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서 가까운 시부코 마을에서 무슬림 여성인 디아나 살림(25살)은 갑자기 밀려든 파도에 휩쓸려 3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다가 900km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 외국 화물선 배에 의해 구조된 일이 있습니다.

살림은 대나무 목재로 만든 자신의 집 잔해에 매달려 표류하였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빗물만 마실 수 있었다"고 표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살림의 부모와 형제도 같이 실종됐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13개월치 월급

필리핀 사람들에게 12월은 기다려지는 달입니다. 12월에는 한 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기 때문입니다. 일년 동안 힘들게 돈을 벌어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시내 백화점에서는 9월초부터 캐럴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12월이 다가오면 한 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하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필리핀 안에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아 운영을 하는데 저희처럼 선교를 목적으로 가난한 무슬림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수업료가 거의 무료나 다름없어 제대로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노동법이 아주 강하여 보너스를 제대로 100% 안주면 법에 걸립니다. 현지 지역 방송에서도 자주 방영이 되었는데 보너스는 꼭 주어야 하고 안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 직원들이 반드시 받아서 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100% 보너스를 준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선생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저희의 학교 재정 상황을 잘 알기에 재정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12월 월급과 보너스 일부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주는데 선생들이 고마워합니다. 2017년 12월은 학교 사무실 공사 마무리와 보너스로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길들을 통해 채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예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3.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들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4. 현탁이가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는데 2018년도 3월부터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를 잘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필리핀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
오정훈 선교사 드림.
ohgongtak@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 877-6642, (704) 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 527-0981, Fax. (206) 524-1748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929, Fax. (702) 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사택.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lc.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 755-1490, 사택 (915) 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 941-4447, Fax. (703) 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박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 560-7500, Fax. (804) 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253) 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aci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27-0630, Fax. (215) 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파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8)

8. 안인교외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외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9)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인 교회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 가지는 큰 전제인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미 “교육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내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

적 본질(actional nature)에 대한 질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양태적 본질(Actional Nature)이란 인간과 외부환경과의 관계 혹은 ‘학습’동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즉 내부, 외부, 혹은 쌍방에 있는가에 따른 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ir environment or to the source of human motivation as inside, outside, or both inside and outside”, Braley, 170).

일반적으로 학습동기의 원천이 내부에 있다면, 이 경우 우리는 그 행동양태의 본질이 “능동적(active)”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습동기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면, 이 경우 우리는 그 행동양태적 본질을 “수동적(passiv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동기의 원천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다면, 이 경우 우리는 그 행동양태적 본질을 “쌍방향적(interactive)”이라고 합니다.

움종심”의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1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예를 보면,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인 쌍방향적 교육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데리고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고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능동적인 교육방법을 취하십니다. 어떠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풋을 직접적으로 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삶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후에, 또한 그간 그것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한 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적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누

예수님 교육방법 원리-②쌍방향성: 능동-수동 균형 있는 “배움 중심”의 교육 진리를 인풋하되 그 진리가 내적인 사고과정 거쳐 말과 삶으로 아웃풋 되도록

보았으며, 지금은 교회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모든 교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통해 성경적 교육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의 두 축인 “삶(life)”과 “쌍방향성(interactive-ness)” 중에서, 지난이야기에서 “삶”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다루었고, 오늘은 “쌍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를 논의할 때, “쌍방향성”이라는 국문표현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쌍방향성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교육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쌍방향성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쌍방향성이라는 표현은 “Inter-activeness”라는 개념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원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 그 두 번째 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nteractiveness”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Interactiveness”는 인간의 행동양태

사람마다 인간의 행동양태적 본질 특히 학습과정에 있어서의 행동양태적 본질을 모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되,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양태적 본질을 쌍방향적으로 이해했고, 이는 인간이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 모두로부터 학습하는 존재임을 전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가 “쌍방향적”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 차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능동성과 수동성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인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체계화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미 2000년전 예수님에 의해 실질적으로 그 교육방법의 원리로 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능동적인 방식과 수동적인 방식을 즉 진리를 선포하고 직접 가르침을 주는 방식과 이에 대해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적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한 측면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셨습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도 배우고 수동적으로도 배운다는 것, 즉 쌍방향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교육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교육은 교사중심 혹은 학생중심의 교육이라는 틀로 구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굳이 말하자면 “배

구신지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본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라고 한다면, 완벽한 통찰을 표현했으며, 예수님은 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엿새 후에 나타났습니다.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이 변화산 체험을 한 이후, 그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라는 완벽한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는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메시야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동경인 듯이 초막 셋을 지어 하나씩 지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정답을 말했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외부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인풋됩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월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말라(고전8:10-13)찬488장

사도는 덕 세우는 범위를 모든 약한 형제에게까지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형제이기 때문입니다(11). 모든 신자는 제각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구속받은 형제로 온전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 죄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12). 소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약한 양심을 해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화 사도권의 변증(고전9:1-9)찬257장

고린도교회 사역에 사도가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성을 느낀 까닭은 교회의 모든 문제가 교훈에 대한 진의를 살피는 귀결점. 곧 바른 성경관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론은 사도권을 어떻게 변증합니까? 첫째, 사도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1-3). 사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세우려고 일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같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도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을 가진 사도의 활동을 존중합니다(4-5). 사도 간에도 그 권위를 존중함은 그들이 받은 계시의 권위 때문입니다. 셋째, 독신 사역의 복음을 주장합니다(6-9).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계시에 충실하려고 경건과 절제로 충성한 사도들의 수고를 주장함으로 복음의 독특성을 변증했습니다.

수 복음으로 살리라(고전9:11-16)찬355장

사도는 복음의 기초이며 복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 본을 보인 함종직입니다. 교회가 여가 세워지기 위해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자란(11-13)? 사(사)명자라고 일컬리는 사도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인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복음을 인해 살아야합니다(14). 사도의 삶은 복

음의 삶이어야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삶을 보였다면 사도는 불완전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 받은 삶이기에 교회가 따라야할 과정에 자상한 지혜를 가르치는 본입니다. 셋째, 복음전파의 자원이 있어야합니다(15-16).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유가 복음세계를 보고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안 자의 감격속에 삽시다.

목 복음화를 위한 사도의 지혜(고전9:17-23)찬401장

사도의 주된 관심인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는 어떻게 이루려고 했습니까? 첫째, 사명을 받은 자의 확신을 가졌었습니다(17-19). 그는 세상에서의 상급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명 때문에 일한다고 합니다. 드러내 그는 값없이 전하고 겸손하게 전하는 그 삶이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아브라함처럼 그는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즐거움으로 사명자는 삽니다. 둘째,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20-22). 그는 선교 상황화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겸손으로 접근했습니다. 온갖 문화에 복음을 적용할 때 사도의 방법을 따라야합니다. 셋째, 복음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23). 겸손한 자세는 자신이 먼저 복음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금 복음을 위해 사는 생활(고전9:24-27)찬378장

사도는 계속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거룩한 경쟁을 선택했습니다(24-25). 달리기 선수와 같이 상을 얻으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그 열심은 언제나 필요할 일입니다. 이 열심을 통해 주님은 기이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둘째, 절제의 중요성 강조했습니다(26-27). 운동선수가 절제훈련을 통해 목표에 이르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제할 수 있어야합니다. 셋째, 방종에 대한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27). 항상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인 욕입니다. 이 욕은 자유분방해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외형주의를 벗어나 내실주의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복음화 하는 일에 힘씁시다.

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10:1-10)찬197장

신자가 타락하면 불신자처럼 됩니다. 사도는 인간의 부패의 원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상징에 머물지 말고 진리에 잘 머물기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구약교회는 모세에게 속해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1-3). 그들은 외형적 기적에만 마음을 두었지 그 실제인 여호와 경외신앙을 등한히 여겨 타락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타락했습니다. 반석과

생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육신적 은총에 머물러 영적인 교제를 등한히 여긴 그들은 우상을 복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셋째, 이런 상징주의의 체 여호와 경외를 힘써야만 우상숭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을 가질 때 현대의 모든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지석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암동 870-10호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절은이름 위한 현대예배)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지석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지석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은이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로 17길 29(삼일동) www.shinch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연희동 49-45 www.shinchon.or.kr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50-1 www.anam.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지석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황철시 성나루 성당로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가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회장 홍연숙 교수

미주한국학교연합회(KOSAA), LA북부지역협의회

‘한국어의 세계화’ 비전 갖고 남미서 한국어 가르친다

“멕시코를 비롯 과테말라 쿠바에 한국어를 전파해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으면 합니다.”

미주한국학교연합회(KOSAA), LA북부지역협의회 회장 홍연숙 교수(발렌시아 한국어학교 교장)는 남미에 한국어를 전파해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어교육사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에네켄의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1900년대 초쯤 한국에서 남미로 우리 조상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 4년만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영국과 일본의 악덕 기업인 이야기를 듣고 떠나게 된 분들인데 정착 낯선 땅에서 고생만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어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노예처럼 에네켄 농장에서 최저의 생활을 하며 한 많은 인생을 살던 이민선조들인 에네켄의 후손들이 과거에는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조들의 조국인 대

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통해 자부심을 심어주고 한국어를 멕시코의 명문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멕시코 UABC대학 티화나 캠퍼스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영문과, 중국 북경외대(교한교수), 연변과학기술대(학장/부총장)에서 6년간 영어와 한국어를,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3-1986)과 UC 버클리(2002-2004) 교환교수로 가르쳤으며 유펜 한국어강좌 개설 경험과 현재 발렌시아 한국어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강의 경험을 살려 2017년 3월부터 한국어 클래스를 위해 두 달여를 준비를 했으며 대학당국으로부터 한국어 개설을 승인받고 지난 8월 1일 한국어반이 출범하게 됐다. 수강생 15명으로 준비했는데 48명이 몰려와 두 개의 반으로 운영하게 됐다.

처음에는 에네켄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과정을 준비했는데 계획이 수정된 것은 에네켄의 후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회장 홍연숙 교수

에네켄후손 못찾았으나 UABC대학 티화나캠퍼스서 시작
과테말라, 쿠바에서도 대학 내 한국어과정 신설 기도 중

“UABC대학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게 된 건 에네켄 한인후손후원재단의 임원 분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과정에서 에네켄의 후손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1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버렸고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은 에네켄의 후손들도 있지만 해

방 후에 이민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2세, 3세들이 태어나게 됐고, 대부분 혼혈이어서 모습들도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과 개설목적을 수정해 멕시코 현지인들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한 학기를

마친 상태다. 한 학기 동안 한국어과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재정적인 부분과 양질의 교사 확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멕시코 경제가 나빠다보니 학교를 세우는 일과 학과를 개설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좋은 교사를 모집하는 것은 한국어학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홍 교수는 말했다. 일단은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 갖춰져야 하는데 마음은 있지만 교사경험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교사를 구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했다.

“교사자격증은 물론이고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미는 스페인어 문화권이기에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 스페인어를 하실 수 없어서 채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니까요.”

인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티화나에 한분이 채용이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분은 비록 경험은 많지 않지만 스페인어 구사도 능하고 가르치려는 열정이 많아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홍 교수는 멕시코에 한국어과 개설이 되고 한 학기를 마친 후 반응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UABC대학에는 한국어반은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당국에 한국어반을 언제 개설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고 해요. 또한 학기 중에 열렸던 학교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부스가 한국문화를 알리는 부스였어요.”

앞으로 쿠바와 과테말라에의 대학교에도 한국어과정 신설을 위해 기도 중이라고 밝힌 홍연숙 교수는 이 두 나라에도 에네켄의 후손들이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한국어과정 개설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많은 후원과 실력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며 재정후원과 교사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 yshong333@yahoo.com , jungwoo@gmail.com 전화 661-505-3324 , 661-964-8205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 총영사관은 _선전적 복수 국적자_ 관련 국적설명회를 가졌다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가능
LA 총영사관, ‘선전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설명회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선전적 복수 국적자’ 관련 국적설명회를 16일 오후 3시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김완중 총영사와 박상욱 부영사를 비롯한 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완중 총영사는 “총영사로 부임해서 보니 LA는 힘이 넘치는 곳이며 할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100만 동포들이 모여 있으며 주류사회로 진

출하는 동포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한인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이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적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김 총영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자들이 12만3천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3천명 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방이 되기도 한다”며 “입양인들이 시민

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방된 자들은 대한민국정부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국적회복 경우는 영사관에 와서 한국국적 회복신청하면 확인절차 후 받게 된다”며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부모일 경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받고 국적이탈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사별 혹은 이혼일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기에 자녀들의 국적이탈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영사는 “국적문제는 다분히 입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자녀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복수국적이 예전 같으면 2005년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않아도 자녀가 22세가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됐다. 그러나 2005년에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자녀의 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상실되지 않고 살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수국적소지자들의 경우 웨스트

포인트 등에 입학이 불가능해지며, FBI, CIA의 정보와 인사를 다루는 부서는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체 취업시 한국지사 파견이나 한국의 기업체 취업시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3월 31일이 되기 전 국적정리를 하면 된다. 1-15세까지는 부모가 동행해 영사관에서 국적정리 절차를 밟으면 되고 15세 이상일 경우는 자녀가 직접 국적정리절차를 밟으면 된다.

출생신고의 경우 양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18세가 되는 3월 31일일까지 국적정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4월 1일부터는 국적이탈이 제한되며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한국체류,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국적이탈은 37세가 지나야 가능해진다.

병역연기는 가능하며 24세 혹은 25세가 될 때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병역연기가 된다. 그리고 국외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한

국병역의무가 없기에 22세전에 영사관을 방문해 외국국적 불행사 및 한국국적자로 살겠다는 서약절차를 밟으면 된다.

박상욱 영사는 국적정리를 해야 하는 자들 가운데 총영사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장거리 거주자 중 자녀가 18세가 되기전 한국방문

계획이 있다면 한국방문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 또한 출생신고가 돼야 국적이탈신고가 원활해 지는 만큼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신고를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15면에서 계속》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교육을 완성하시기 위해 수동적인 방법을 또한 취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쌍방향적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육방법적 원리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교육이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지나치게 수동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혹은 반대급부로 지나치게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주입식으로 공허하게 외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제 지양하고, 진리를 인풋하고 그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내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아름답게 입술로 삶으로 아웃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쌍방향적 교육방법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 실행할 수 있어야만 성경적 교육을 보다 잘 진행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미디어벽

플래그

롤업배너

X 배너 거치대

현수막

벽걸이 포스터

미주한인교회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바자센터 분당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